



半歩千里 한국콜마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 당신이 늘 쓰는 것이기에

우수한 화장품을 만드는 기준, CGMP  
대한민국 최초 CGMP 1·2호 인증 획득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화장품,  
한 걸음씩 우직하게 내딛는 우보천리의 정신으로  
한국콜마가 만들어 갑니다.

대표이사/회장 윤 동 한 (52회)

**kolmar**  
한국콜마

# Contents



표지화 『50년대 회상』 다색목판 88.5×135.5cm

## 김 우 조 (30회)

- 동경미술학교 졸업
- 조선미술전람회 입선(1941년)
- 대구화우회 창립회원
- 대백갤러리 초대전(2003년)
- 대구의 근대미술전(2009년)

## 啓聖同窓會報

Since 1971

〈제64호〉

인 쇄 일: 2019년 1월 18일

발 행 일: 2019년 1월 20일

발 행 인: 이재운

편 집 인: 오달현

주 간: 이수남

발 행 처: 계성학교 총동창회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811호  
우)41927

전 화: (053)255-3900

전 송: (053)256-4942

전자우편: keisung1906@hanmail.net

인 쇄 처: 금성기획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96, 신한빌딩  
2층 우)03995

전 화: (02)333-4292



계성중·고등학교총동창회

## 권두언

04 총동창회장 이재운(56회)

## 축 사

05 모교 교장 현창용

## 권두인터뷰

06 전 총동창회장, 대법관 신성택(45회)

09 2018년, 이재운 총동창회장 동정

## 리뷰

14 개교 112주년 기념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



20 총동창회 회장배 기별골프대회

26 제27회 재경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 특집 - 3.1운동 100주년 기념

27 3.1운동, 향토에서는 '계성'이 주도했다.  
남기진(51회)



## 기고

33 계성과 대구 근대미술 김영동(63회)

## 총동창회소식

38 제4회 계성가족 한마음 트레킹  
총동창회 회장단 및 이사회  
제2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축구대회



제25회 총동창회장배 바둑대회  
제26회 총동창회장배 기별테니스대회  
총동창회장배 기별 등반대회  
대구·재경동문, 합동산행



## 42 동문동정

### 살며, 생각하며

- 47 팔순에 부르는 '은빛 메아리' 김재양(44회)  
49 올바른 습관과 건강 박경우(44회)

## 51 기별소식

## 66 지부소식

## 73 동호회소식

### 동문에세이

- 77 등산예찬 이인직(60회)  
79 퇴임에 즈음하여 장 욱(62회)  
81 추억의 시간여행을 마치고... 김진걸(65회)

### 신간소개

- 83 변홍섭(52회) 『홍섭의 시와 사진집』  
이병구(53회) 『섹세스 애티튜드』  
이재윤(56회) 『임플란트 이야기』  
장기성(57회) 『설렘이 삶을 다듬다』  
우석용(75회) 『꽃꽃 가득한 세상이어라』  
『계성인』 총동창회 명부 제17호

## 85 모교소식

### 졸업회고

- 90 계성동산을 떠나며... 송무경(106회)

## 92 회보 자료 접수 안내



##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뭉쳐야합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으며,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문 여러분 그리고 계성 가족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가정 더욱 화목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연초에 계성동문의 소식을 전하고 동문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총동창회보>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조해주신 동문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읽어주시는 모든 동문들께도 감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또 회보를 만드는가? 라고 핀잔을 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더 뭉쳐야 합니다.

처칠도 2차대전 때 “조국은 여러분의 피와 땀을 요구한다”라고 했고 케네디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총동창회장인 저 역시 동창회와 모교를 위해 동문 여러분이 도와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최근 모교도 자사고의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서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동문회가 더욱 뭉치고 소통해야 합니다.

저는 동창회장을 하면서, 우리 동문들이 애교심이 많고 동창회를 어느 동문보다 사랑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힘 있는 정치가나 관료가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는 학교들은 있지만, 우리 계성 동문처럼 순수하게 동창회를 잘 하는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동문 여러분들께 늘 감사를 드리고 저 역시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총동창회장 이 재 윤



## 최고의 명문사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성학교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겨울의 추위가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이때에, 계성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올해로 벌써 상리동 캠퍼스로 이전한지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문 여러분께서는 시설을 보완하고 새로운 교구를 확충하는데 도와주셔서 우리 학생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후배들을 위하여 많은 장학금을 기탁해주셔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모든 학생들에게 3년 동안 현장체험 학습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교사랑과 후배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후원에 힘입어서 우리 학생들은 최적의 교육환경 속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매년 탁월한 대입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학교장으로서 동문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사고에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 동창회를 포함한 계성교육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에 맞서서 우리 교직원 일동은 계성교육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는 말씀에 바탕을 둔 영성과 인성, 지성을 키우는 차별화된 교육을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계성교육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위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2019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가호가 동문여러분과 그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성고등학교장 **현 창 용**



## “총동창회장 재직시 모교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많은 동문들이 모교의 교세가 과거와 다른 점 아쉬워해  
동문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교를 위하는 길



신 성 택 (45회)  
전 총동창회장, 대법관

“2018년 8월말로 함께 53년 6개월 여의 법조생활(고 등고시 사법과 마지막 16회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 후, 공군법무관 3년, 판사 26년 6개월, 대법관 6년, 개인 변호사 2년 6개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15년 6개월)을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율촌에서 퇴임한 후 나름 생활 패턴을 익히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나가지는 않지만 가급적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한편 독서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시사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신문을 많이 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신문을 정독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합니다. 눈에 띄는 특별한 뉴스는 물론 국

제 정세 등을 관심있게 보는 편입니다. 가끔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소식을 접하면 인터넷을 찾아서 다시 보곤 하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8년을 보내면서 계성동문 최초 대법관을 역임하고 2003년도부터 2년간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신성택(45회) 선배님의 근황을 알아보는 일이 궁금했다. 신 회장은 근황을 묻는 후배의 여러가지 질문에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다.

**평소 독서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독서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조실록』을 인

상 깊게 읽었습니다. 동문인 한국 콜마의 윤동한 회장이 쓴 『기업가 문익점』, 김동길 교수의 『나이들이 고맙다』, 이승현의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등도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하면서 읽습니다. 휴대폰 노트에 줄거리를 메모하면서 읽다 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정신도 맑아지고 기억에도 더욱 많이 남게 되니 동문들도 한번 실행해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거의 매일 날씨에 관계 없이 등산하면서 명상을 합니다. 주로 집 뒷산인 옥수동 팔각정을 오르면서 걷는데 높이도 적당하고 계단도 있어서 운동하기에 좋습니다.”

### 골프도 좋아하시지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골프를 즐깁니다. 워낙 좋아하는 취미인데,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 거리가 전처럼 잘 안 나가지만 정확도가 있어서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문이나 법조계 지인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는데, 요즘은 동네 지인들과도 가끔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차마고도와 티벳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 요즘 자주 만나는 지인들은?

“아무래도 가장 오래 몸담았던 법조계 선후배, 동료 혹은 학교 동문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가까이 지내는 모교 동문 몇 분과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직 대법관들이 모이는 자리도 있는데, 최근 법조계나 나라 안팎의 소식을 전하거나 얘기하면서 걱정도 하고 또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가끔 이런 저런 인연이 있어 연락들이 오지만 가급적 익숙하지 않은 모임에는 사양하는 편입니다.”

###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이에도 건강은 괜찮은 편인데, 앞서도 말했듯이 걷기를 주로 하며, 충분한 수면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1시간반 정도 1만보 이

상 걷고 있는데, 적당히 땀날 정도가 되면 몸이 상쾌해 집니다. 그리고 30분, 길면 1시간 정도 낮잠도 자는데, 잠이 보약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 총동창회장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있는 것은 총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모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서 학교 다니고, 법조계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모교에 신경을 쓸 기회가 적었는데 총동창회장을 맡으면서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모교를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여러 동문들과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 과정을 통해 모교 발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지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동문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노력했고, 졸업생들이 모교 발전에 더욱 애정을 쏟도록 나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생활 기반이 서울이다 보니 모교나 대구에 자주 내려가지 못해 그곳 동문들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지금 생각하니, ‘조금 더 자주 내려가고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모교와 동창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모교와 동창회 그리고 동문들의 발전을 바랍니다. 모든 동문이 건강하고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모교를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선후배 동료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선배들은 후배를 배려하고 격려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학교도 재학생과 졸업 동문 간의 유대감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졸업생들이 모교를 더 사랑하고, 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학교를 더 발전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건이 쉽진 않겠지만, 많은 졸업생 동문들이 모교의 교세가 과거와는 다른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모교를 졸업하신지가 70여년 가까이 되는데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다면?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두 분이 생각납니다. 한 분은 3학년 때 담임이던 김이철 영어 선생님입니다. 저에게 대학 진로를 상담해 주셨는데, 선생님 덕분에 제가 법조인이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교를 떠나 숭실대 교수를 지내신 것으로 아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또 한 분은 계성초등학교 초대 교장을 지내신 유병석 국어선생님이신데 제가 철학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 계성법조동문들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법조계에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제가 법조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선배님들이 두어 분밖에 안 계셨는데 지금은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홀로서기로 활동하는 한편 선후배 간 교류와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법조인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계성법조인동문회>가 만들어져 제가 초대 회장을 지내면서 가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신명 출신 법조인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법조 모임을 <계성·신명 법조인동문회>로 발전시켜 역시 초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 후배들의 활동을 보시면?

“우리 동문들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법조인의 활동도 활발한 데 여성법조인모임 회장을 지낸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판검사나 변호사 등으로 많은 동문 후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2018년부터는 위 모임이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운영할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옵니까?

“대부분 자신들의 근황과 동문 소식 등도 전하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과 의견을 올리기도 하지요.”

### 모교에 대한 당부말씀이 있다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조계에 뜻을 가진 동문들이 좀더 많이 배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들을 위해 선배 법조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문 등으로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모교가 법조인을 희망하는 재학생 후배들을 위해 선배들과 교류하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제가 대법관 시절 모교의 초청을 받아 후배들 대상으로 법조계가 어떤 곳이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등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직에서 활동하는 훌륭한 후배들이 많은데, 이들이 후배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모든 분들이, 자신의 지난 과정,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보람도 있겠지만 동시에 아쉬운 부분들이 많겠죠. 저도 뒤돌아 보니 때로는 부끄럽고 뉘우칠 일도 많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일을 아쉬워하기 보다는 오늘에 이르러 감사한 마음 뿐임을 깨닫고, 내일을 위해 더욱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큰 욕심이 없어 합리적으로 매사를 처리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신성택 전 회장의 가족관계는 사모님과 아들 셋을 두고 있다. 이들로부터 6명의 손자 손녀를 두고 있으며 <화목과 조화>를 모토로 하고 있다. 또한 손자 손녀들의 곧고 올바른 미래를 기원하고 있기도 하다.

원로 동문들의 생각과 뜻을 동창회에서 찾아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2018. 12. 27

정리 - 이수남(50회) 주간





## 2018년, 이재운 총동창회장 동정

### 총동창회 가족트레킹대회 참가/4월 7일

정겨운 동해 바다 물결이 넘실거리는 구룡포읍 호미곶 일원에서 30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계성가족 한마음 트레킹이 열렸다. 이날 이재운 총동창회장은 이번 트레킹대회를 통해 동문 간 친목과 우정을 다지면서 동창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 이시원(50회) 박사 학위수여식에 참석/4월 10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컨벤션홀 이루어진 이시원(50회)동문의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수여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 소개가 있었으며 명예박사 학위수여 공적서 낭독, 학위기수여 영남대학교 총장식사에 이어 이시원 명예박사의 인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이재운 총동창회장, 장영철(전 노동부장관), 조준제 동문과 김대곤, 김일득 등 50회 동기를 비롯한 많은 하객이 참석, 축하하였다. 한편 총동창회에서는 축하패와 꽃다발을 증정하였다.



## 계명대 총장실 방문/5월 2일



모교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신일희(44회) 이사장의 초청으로 계명대학교 총장실을 축하 인사차 방문하여 답소를 나누었다.

특히 모교와 재단, 장학회, 동창회가 서로 협심하여 유기적으로 돌아가길 희망 하면서 동창회에 대한 재단의 많은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모교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소를 나누며, 이날 오찬으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 기별 골프대회 대표자회의/5월 3일

덕영치과병원 603호에서 개최된 56회부터 88회 동문 대표 40명이 참석한 기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총동창회장배 기별 골프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별 대표자와 대회준비위원회의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준비한 준비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골프대회가 동문회합과 동창회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행사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하였다.



## 총동창회장배 기별골프대회 협찬금 전달/5월 18일

대구 CC에서 치러진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나쁜 일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46회~83회까지 250명의 동문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65회 서태교, 김진걸, 송기정 동문들을 치하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 협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문과 자리를 빛내준 모든 동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1300만원의 협찬금을 전달하였다.





## 기별등반대회 참석/5월 20일

계성총동창산우회를 중심으로 해마다 이어져오는 총동창회장배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150명의 각 기수 대표선수와 오상달 산우회장, 이하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 하였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동문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 바둑대회 참석/6월 17일

제25회 총동창회 바둑대회가 한국기원 대구본부에서 이재운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9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치루어졌다. 이날 바둑대회를 통하여 동문 상호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했다.



## 덕영실 명명 및 개관식/10월 4일

그 동안 모교 발전에 크게 공헌해온 이재운 총동회장의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자 모교에서 주관한 <덕영실개관 및 명명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명명식에는 신일희 계성교육재단이사장, 현창용 모교교장 그리고 56회동기 및 많은 학부형과 학생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는 시간을 가졌다.



## 55회 졸업50주년 기념 행사/11월 30일

2018년 11월 30일 대구 그랜드호텔 리젠시 홀에서 진행된 55회동기회 총회 및 송년회에 참석하였다.

55회동기회의 졸업50주년을 축하하면서 이날 김효일 동기회장 등 졸업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한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 65회 졸업40주년 총회/12월 5일

라운제나 호텔에서 개최된 올해 졸업40주년을 맞이한 65회동기회(회장:남병현) 총회에 참석해 졸업40년을 축하하였다. 특히 이재운 동창회장은 그 동안 골프대회, 체육대회 등 각종 동창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명의 총동창회부회장 맡고 있는 65회동기회에 감사를 전하고 표창하는 자리를 가졌다.



## 58회 총회 및 송년회/12월 14일

인터불고호텔 더 뷔페에서 80여명이 참석한 58회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축사에서 이전의 56회, 57회, 58회 동기회가 체육대회를 가지졌던 이야기부터 지나간 많은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김창곤 동기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수한 학창시절로  
돌아가고픈 선후배들의  
열정적 참여가 돋보여...











▲ 대회를 하는 이재운 총동창회장

## 개교 112주년 기념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

개교 112주년을 기념하는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가 2018년 10월14일 상리동 모교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청명한 10월의 가을하늘 아래서 계성인의 한마당 축제가 선, 후배 동문들과 동문가족 1000여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상리동으로 모교가 이전 한 후 신축교정에서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체육대회는 죽전역에서 모교까지 버스를 대절해 동문들의 편의를 제공해주었다. 유음회동문 밴드의 신나는 연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면서 개교 112주년 가족체육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운동장 사면에 둘러싸인 각 기별 텐트에서는 입장식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10시 정각 사회자의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이어졌고 손용식 총동창회 부회장의 개회선언, 소신열

목사님 동창회체육대회를 위한 기도, 이재운 총동창회장님의 대회사, 국민의례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해 우승기수의 우승기 반납 순서로 진행되었다.

가을의 청명한 날씨 속에 진행된 체육대회는 100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하여 각 기별의 명예를 걸고 발배구, 줄당기기, 골프 어프로치 등을 치르며 기별의 단결과 화합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경기의 장을 마련하였다.

해마다 줄어드는 후배동문의 참

여율이 아쉽지만 반백을 넘어 순수한 학창시절로 돌아가고픈 선배님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후배기수 88회 동기회가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내년에는 83회동기회가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한편 일 년에 한번 치러지는 체육대회에 30주년 40주년을 기념하는 기수들의 불참이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65동문회의





체육대회 참여가 전통이 되어 10월 체육대회는 빠짐없이 전 기수 동문의 참여하기를 희망해보며, 2019년에도 소중한 동기회 및 동기가족들

이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체육대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번 체육대회에 박창달 (51회) 전회장 금일봉, 윤동한 (52

회) 동문 콜마화장품 400set, 진영환 (52회) 동문 50inch TV 등을 협찬해주었다. 협찬에 감사드립니다.









## 개교 112주년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 참가후기

###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에 선을 보이고 나서...



권혁태 (82회)

언제부터인가 매년 가을이 되면 어떤 일 보다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행사가 생겼는데 바로 모교의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다. 총동창회 가족체육대회를 통하여 선후배 및 동기간에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동기는 2014년도에 결성 되어 올해로 5번째 참가를 했는데 매년 조금씩 체육대회 참가 인원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배님들의 참가 인원 및 뜨거운 열정을 따라 가기에는 후배로서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특히 줄다리기 종목을 할 때는 “우와, 우리는 언제 저 선배님들처럼 많이 참가해서 우승 한 번 해 보겠노...”라고 웃음 지으며 한탄을 하기도 했다. 우리 선배님들도 처음에는 지금의 우리처럼 작은 인원으로 시작하여 현재의 많은 인원이 함께 하는 동기회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선배님들을 따라 앞으로 더욱 더 동기회 발전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올해 체육대회는 최근의 경제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영향으로 이전 체육대회에 비교해서 행사 규모가 조금 축소 된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2019년 체육대회는 좀 더 알차고 풍성한 체육대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이 큰 행사를 준비하신 이재운 총동창회 회장님 이하 준비위원회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오며, 내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동문들이 참가하고 계성동문의 단결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었으며 하는 바램이다. 특히 매년 체육대회에 선배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후배들과 재학생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





풍성한 축제, 단합된 힘, 보여줘  
55개팀 250명,  
최다 참석율 기록









46회 부터 83회까지 55개팀 250명 참석  
단체우승 71회, 개인우승 신재석(76회) 동문

## 총동창회 회장배 기별골프대회

개교112년을 기념하는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5월 18일 경산 대구CC에서 개최됐다. 이번 골프대회는 총동창회 이재운 회장, 서태교 대회준비위원장, 김진걸 총괄준비위원, 송기정 기획위원, 남병현(65회) 동기회장, 박상식(66회) 성록회 회장, 최준영(74회) 준비위원을 비롯한 각 기수 대표 55개 팀 250명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의 골프대회가 되었다.

이날 티업 몇 시간 전부터 우천이 예보되어 많은 걱정 속에 진행 되었으나, 이내 시타를 축하하듯 잠시 맑은 모습을 보인 날씨는 12시 50분 티업을 시작으로 초겨울 날씨로 돌변하여 추위 속에 경기가 진행되었다. 급변하는 날씨로 인해 동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대회가 되었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회준

비위원들의 철저한 준비 속에 무탈하게 경기를 마쳤다.

골프대회에 참가한 46회 원로선배님부터 83회까지의 동문들은 기수를 대표해서 참석하여 경기에 임하였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갑자기 몰아닥친 기상이변으로 비바람과 추위에 몇몇 동문들은 경기를 포기하기도 했다.

경기 후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된 식사와 시상식은 이번 대회를 치르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재운 총동창회장, 전진우 재경동창회장, 이대원 총동창회 자문위원 원로 동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동문들이 다함께 어울려 풍성한 축제가 되고 계성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며 성숙하고 발전된 골프대회로 기대해 볼만하다.





■ 총동창회 회장배 기별골프대회 수상내역

구 분	수 상 자
단 체 우 승	71회동기회
단체 준우승	79회동기회
단 체 3 위	59회동기회
개 인 우 승	신재석(76회)동문
개인 준우승	김극한(66회)동문
개 인 3 위	임종열(61회)동문
메 달 리 스톱	김실봉(59회)동문
72타행운상	이호영(69회)동문
롱 기 스톱	백기영(73회)동문
니 어 핀	중코스 : 변기식(63회)동문 동코스 : 노원수(71회)동문 서코스 : 이창희(74회)동문
우 정 상	56회동기회
BEST드레서	김교원(74회)동문
매 너 상	손종야(63회)동문
감 투 상	김민(83회), 김석(82회)동문













계우회 창설 50주년 맞이해 시상과 상품 준비  
선·후배 정을 돈독히 나누다

## 제27회 재경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제27회 재경 계성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10월 30일 안성 CC에서 36팀 144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재경동문 골프 모임인 계우회가 창설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많은 시상과 상품을 준비하였다. 또한 재경 동문들의 위상과 골프대회를 통해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대회로 기억되었다.

재경 동문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문 간의 우애증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 ■ 시상내역

단체우승 : 시니어부(~65까지), 61회동기회(66~84회),  
74회동기회

메달리스트 : 조선찬(61회) 동문 69타





## 3.1운동, 향토에서는 ‘계성’이 주도했다.

제1차 봉기인 3월 8일, 8명의 전현직 교사, 재학생 48명 전원참가  
거사 후의 모교는 폐허가 되었고 2년간 학교 기록도 없어

“

모교 계성은 3.1독립운동, 6.3학생운동, 6.25동란 등 우리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선도적으로 활약하였고 2.28, 4.19 등 국내 정치, 사회가 혼란 할 때에는 침묵하였다. 또다시 자유민주국가가 위협했을 때는 의연히 일어날 것으로 본다.

”



남 기 진 (51회)

### 1. 계성과 3.1운동

계성학교는 1906. 10. 15.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인 아담스(James. E. Adams) 목사에게 의해 시내 남성로 선교사 사택에서 고고성을 올렸다. 3.1독립운동의 시작은 일제에 의한 1876년(고종13년) 강화조약으로부터 갑신정변, 갑오경장, 을미사변, 노일전쟁 등을 일으키고 1905년에는 박재순, 이완용 등 5적의 서명을 받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외교권과 내정을 간섭하다가 1910년 끝내 한일합방되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총독부를 설치하여 철저한 감시, 지독한 형옥제도 등으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항거하는 의병, 열사들이 전국각지에서 일어나 3.1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대구읍성이 철폐되기 시작한 것이 광무10년(1906년)계성이 태동하던 해였다.

1907년 4월에 대구성이 완전히 철폐되었으며 이에 격분한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때 많은 계성학교 학생들이 동참하였는데 특히 홍사택, 강봉한, 최상원, 김만성 등의 「양일회」회원들이 선두에서 시가행진을 주도했다. 기세가 심상치 않음에 일경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행진을 막아 약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구급까지 하지 않았다. 이것이 계성인과 일제들이 부딪친 첫 사건인 것이다.

1919년 3.1운동 당시 계성은 제8회 졸업식을 20여일 앞두고 있었으며 일제의 감시, 감독이 심하여 재학생 수가 1916년에는 92명이던 것이 1917년에는 82명, 1918년에는 68명, 1919년에 3.1운동 당시인 3월17일에는 46명으로 줄어들 만큼 탄압이 극심하였다.

### 2. 3.1독립운동의 기수 「계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족자결의 봉화가 계성학교에도 점화된 것이 1919년 2월 15일 파리강화회의의 민족대표인 김규식박사의 부인(김순애)이 북경대학 재학할 때 만난 인연으로 백남채(모교교사 3회)선생을 찾아와 세계정세의 변화와 상해동향을 알려주며 민족운동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1919년 2월 24일 민족대표 이갑성 선생이 내구하여 당시 기독교계의 유지인 이만집(남산정교회 목사, 전모교 교감, 이상백(동 교회 장로), 백남채(남산정 교회 장로, 모교교사)를 만나 민족거사를 설명하고 대구 지방 대표가 될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대구와 영남 3.1운동의 효시가 되었으며 계성학교는 그 본거지가 되어 영남 각 지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제1차 봉기인 1919년 3월 8일 서문 외 시장거사에서 8명의 전현직 모교교사(8명 중 4명이 모교동문)와 전교생(48명)이 봉기하였다. <표1><표2> 참조

< 표 1 > 이만집 외 75인의 판결문(1919. 5. 31)에서 나타난 주동자 직업 및 형량

직업 형량	학생					교사		농업	상업	직공	기타	계
	계성	대구보고	성경학교	송실(평양)	계	계성	신명					
3년						1						1
2년 6개월								1				1
2년				1		3		1				5
1년 6개월						2		3				5
1년	1	2				1	1					5
10개월	5	2							1		1	10
6개월	27	3	4			1		1	2	2	2	47
집행유예	2											2
계	35	7	4	1	47	8	1	6	3	2	3	76

< 표 2 > 서문외 시장 거사의 계성 출신 주동자 현황

성명	연령	직책 및 직분	형량	주소지	비고	성명	연령	직책 및 직분	형량	주소지	비고
이만집	44	예수교 목사	3년	대구 남성정	전 계성학교 교감	이창순	25	"	6월	창녕	8회 동문
김영서	38	계성학교 교감	2년	대구 남산정		신창식	21	"	6월	산청	8회 동문
백남채	33	계성학교 교사	2년	"	3회 동문	권영화	19	"	6월	대구	8회 동문
최상원	34	"	2년	대구 서성정	1회 동문	서복이	17	"	6월	대구	10회 동문
최경학	30	"	1년 6월	경산 안심	2회 동문	이영식	23	"	6월	대구	8회 동문
권희운	49	"	1년 6월	대구 신정		이규환	15	"	6월	대구	
이재인	32	신명학교 교사	1년	"	1회 동문, 전 계성교사	이승욱	22	계성학교 5년	6월	김천 부항	8회 동문
신태근	50	계성학교 교사	6월	서울	구 한국보병참령	손석봉	19	" 4년	6월	경주 황남	8회 동문
박봉현	21	계성학교 5년	1년	" 침산	8회 동문	최영학	21	" 3년	6월	청도	8회 동문
심문태	25	계성학교 6년	10월	거창 하동	8회 동문	박재근	20	" 3년	6월	달성 화원	
김삼도	22	계성학교 6년	10월	고령 덕곡	8회 동문	박몽포	18	" 3년	6월	대구 서성정	
박성용	21	계성학교 3년	10월	대구 침산	10회 동문	이이석	20	" 3년	6월	의성	
허성도	18	계성학교 학생	10월	영덕 심자	8회 동문	손치봉	21	" 3년	6월	합천 초계	
김재범	20	계성학교 3년	10월	의성 사곡	9회 동문	나상기	20	" 2년	6월	경산 고산	
정원조	22	계성학교 6년	6월	대구 신정	8회 동문	정인엽	19	" 2년	6월	예천 풍양	
김수길	19	계성학교 학생	6월	김천 증산	8회 동문	안영두	18	" 2년	6월	울산	
박상동	25	"	6월	의성	8회 동문	허 방	21	" 1년	6월	영일 송라	
권성우	22	"	6월	"	8회 동문	장해동	19	" 1년	6월	"	
이기명	22	"	6월	"	8회 동문	이석도	17	" 1년	6월	대구	
권중윤	19	"	6월	안동	8회 동문	장봉수	17	" 1년	집행유예	"	
이만이	20	"	6월	칠곡	8회 동문	이성해	17	" 1년	"	"	
김달윤	17	"	6월	경산	8회 동문						





▲ 3.1운동 당시 계성학교 전 교생

제2차 봉기인 3월 10일 남문 외 시장 거사시에 체포된 65명 중 형을 받은 주동자 9명 가운데 모교 학생이었던 박태현(5학년), 박성용(3학년)의 활동이 가장 드러나 박태현이 최고형인 1년을, 박성용 외 4명이 8개월 형을, 나머지 4명이 6개월 형을 받았다. 1, 2차 봉기 후에는 계성학교 학생인 김수길, 이덕생, 김영식, 허성덕, 이기영, 이종현, 권성우 등의 활약이 눈부셨다.

또 지방으로 내려가 그 곳의 봉기를 주도했다. 즉 김수길에 의한 김천, 개령 봉기의 조직 및 지도, 박상동에 의한 의성, 비안 봉기의 조직 및 지도, 이영식, 이내성에 의한 칠곡, 인동 봉기의 조직 및 지도 등이 기록에 남아 있는 것 외에도 지방 학생들이 고향에 내려가 그 지방 봉기를 주도했다. <표1>, <표2>에서와 같이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만 보아도 두드러진 계성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이렇게 3.1독립운동 거사 이후의 계성학교는 「서리맞은 꽃밭」같아서 대부분의 학생은 구금, 도피 또는 분산되어 버리고 교정은 폐허가 되어 버렸다. 교무 일지에 1919년 3월 8일부터 1921년 4월 6일까지는 기록이 없는 것만 보아도 그 당시의 심각성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거점이고 항일의 온상인 계성의 명성은 대단하여 그 이듬해부터 신입생의 희망자가 대폭 증가하였음이 계성학교 학적부에 잘 나타나있다. 계성학교의 성스러운 거사 활동에 충격을 받아 사업까지도 정리하고 입학하시는 분, 아들, 심지어 손자와 교문을 찾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병화(14회) 선배님께서 생생히 증언한 바 있다.

### 3. 서문외 시장의 거사(1919년 3월 8일)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사람인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200매를 입수한 이만집은 대구에서도 거사해야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같은 교회 장로 김태련, 모교 교감 김영서와 더불어 의논하였다. 3인은 다가오는 서문 외 시장의 장날인 3월 8일 오후 3시를 기하여 봉기할 것을 약속한 후 다시 모교 교사인 백남채, 최상원, 권희운 최경학과 밀회를 거듭하면서 사방으로 손을 뻗혀 동지와 학생을 규합해 갔다.

김태련(남산교회 전도사)과 그의 아들인 모교 학생 김용해는 이만집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매를 받아 3월 6일 남산정 자택에서 등사판을 이용하여 수없이 등사(판결문에는 200매)하고 「조선독립」이라 해서 특필한 큰 기와 태극기 40여개를 만들어 봉기에 대비하였다.

한편 모교 교사인 백남채는 이에 앞서 이갑성이 보내온 독립선언서를 책보에 싸 모교 소사인 손상우에게 맡겨 봉



기 당일 모교생 심문태, 박태현으로 하여금 군중들에게 배부토록 수배해놓고 태극기를 비밀리에 학교 기숙사에서 만들었다.

모교교사인 김영서, 백남채, 최상원, 권희운, 최경학 등은 모교 학생 대표인 심문태, 김삼도, 이영식, 정원조, 박태현, 이승욱, 박성용, 김재범, 손석봉, 최영학, 박재곤 등을 통하여 학생 동원과 거사 준비를 마련했다. 또한 모교 학생인 정원조, 이차돌은 대구고보와 접촉하여 합동거사토록 하였으며 모교 1회 졸업생이고 전 모교 교사이며 신명여학교 선생인 이재인은 신명 여학교 학생동원을 책임졌다. 드디어 3월 8일 이 날은 장날이며 토요일이었다. 수업을 일찍 마치고 전교생이 시장 주위에 진입하였다가 기독교인, 대구고보, 신명여학교, 성경학교 학생 등과 시장보러온 민중 수 천 명(판결문에는 700~800명)이 서문 큰 장터에서부터 대구경찰서, 달성군청 앞까지 준비한 큰 기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면서 만세를 부르는 시위대열이 노도와 같이 행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달성군청 앞 삼각지에 일본군 80연대가 5~6대의 기관총을 설치하고 착검을 한채 총을 겨누고 있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일본군, 헌병, 경찰등은 시위대에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 때 중상을 입은 부상자는 부지기수였다. 하는 수 없이 학생시위대는 다음을 밀약하고 해산하였다.

#### 4. 남문의 시장(덕산정시장)의 거사(1919년 3월 10일)

3월 8일 일본군경에 의해 해산을 당한 후 3월 9일 오후 3시경에도 계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 150여 명이 재봉기하기 위해 달성공원에 모였다가 일제군경에 탐지되어 강제 해산을 당하였으나 학생들의 의지는 더욱 굳었고 비밀밀회가 거듭되었다. 모교 학생 박태현, 박성용 두 숙질은 대구 고보 학생 박남준, 김재소 등과 연락하여 3월 10일 남문의 시장 장날에 다시 만나기로 밀약하고 태극기, 기타 준비물을 마련하였다. 10일 오후 학생들은 변장하여 유지들과 더불어 시장으로 잠입해갔다. 그러나 시장 안은 경계가 삼엄했고 일군경이 오히려 장꾼보다 많았다.

주모자들은 눈짓으로 상호연락하여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기와 태극기를 높이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우렁차게 불렀다. 수많은 의 군중이 호응하여 독립만세의 함성이 시장을 진동케했다. 그러나 많은 일군경에 의해 시위운동을 전개하지 못한채 주모자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이 날 체포된 주모자와 애국 군중은 65명이었고 이 가운데 주모자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계성학교 박태현(21세·5년), 박성용(17세·3년) 대구고보 학생 박남준(27세·4년), 김재소(19세·4년) 기타 김재환(27세·전당포업), 이덕주(23세·농업), 김치운(56세·농업), 김운덕(32세·한약상), 서상철(19세·제봉직공), 이영호(27세·무직)등 9명이었다.

이들은 재판결과 박태현은 징역1년형을 박성용, 박남준, 김재소, 김재환, 이덕주 등은 징역 8개월을, 그 외에는 각각 6개월형을 언도받았다. 한편 이영호는 거주지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2년을 언도받았다.

#### 5. 서문, 남문 외 시장 거사 이후의 계성인의 활약상

3월 10일 남문의 시장의 거사 이후 계성, 대구고보, 신명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대구 시내는 삼엄한 경계가 내려졌다. 심한 경계로 인하여 계성의 독립운동은 지하로 비밀조직 아래 분산되어 갔다.

이때 모교 학생 김수길은 대구 하숙집(대구부 신정 김석식 방)에서 이영식, 허성도, 이기명과 수차례 만나서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약하였다. 이들은 먼저 일본인과 거래치 말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정표시 경고」의 격문을 4월2일 300매 등사하여 시내 여러곳에 배포하고 상인들에게 우송하였다. 「조선이 일본에서 병합된 것은 비리이다. 조선인은 결사로서 조선독립의 목적을 관철해야 한다. 벌써 이를 위해 생명을 버리고 옥사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모름지기 동정을 표시하고 일본인과의 상거래를 중지하기 바란다. 불응자는 좋지 않는 결과가 따를 것이다...」 이 결과 서문의 시장(큰장)에서는 약 80호의 상가가 호응하여 폐점, 철시하였다.



4월 6일 이들은 다시 대구 경찰서장(시라이)에게 「너는 왜 3월 8일 한국 독립만세를 부른 무고한 애국동포를 검거 하였느냐! 너희들과 같은 자는 암살할 시기가 있을터이니 각오하라!」는 경고장을 익명으로 우송하여 일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1호와 비슷한 「동정 표시 경고문」 제 2호를 400매 등사하여 시내 요소에 배포하여 애국시민의 적극적인 항일 쫓기를 독촉하였다.

4월 7일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정 표시 경고문」 제3호를 300여매 등사하여 시내 요소에 배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서양의 신문기자들이 내구하여 시내를 순시함으로 조선인은 독립자유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조조(早朝)부터 철시 폐점하라! 또 상인은 일본 상인과 금전 물품의 거래를 하지말라! 신문에 전해지고 있는 총독부의 논고 기타 경찰관의 전달은 모두 허위임으로 믿지 말라! 폐점하지 않는 자는 강제수단을 세울 것이다.’

또 4월 13일 이들은 일제가 이때 친일분자를 앞세워 「자제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애국민중을 강제로 가입시켜 민족독립운동을 차단하려고 획책하는데 분개하여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만들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자제회를 설립하고 다수를 강제로 입회시키는 것은 조선민족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것임으로 암살할 것이다.’

한편 김수길 등은 이 경고장을 친일파와 거두 박중양(일 중추원 참의), 백응훈(당시 대구 명치정 2정목 구장)에게 우송하여 이들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또 김수길은 학생 청년들과 항일독립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혜성단」이라는 결사조직을 이종식, 이영옥, 이명건, 최재화, 이종현, 이덕생과 더불어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부서를 정하여 국내외 투사들과 연결하고 출판물을 간행하여 대중을 각성시키기도 했다.

- ① 인쇄책 - 김수길, 최재화
- ② 인쇄물 기타 배달책 - 허성도, 이덕생, 이종식, 이종현, 이기명, 이영식
- ③ 출판책 - 이수건
- ④ 만주출장책 - 이영옥
- ⑤ 연락책 - 이명건

또한 「혜성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명건이 59원, 이수건이 20원을 기타로부터 얼마간 협조 받아 약100원으로 운영하였다. 혜성단은 4월 18일 「근고동포」 300매, 5월 7일에는 「경고 관공리 동포」 200매를 인쇄하여 시내 요소



▲ 계성학교 아담스관(이 건물 지하에서 독립선언서를 등사함)



▲ 아담스관 지하 모습



에 배포하고 각 군,면에 동길 관공리들 에게 우송하였다. 또, 민족 자본가들에게 독립운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 6. 지방에 독립운동을 확산시킨 계성인

### 가. 김천, 개령 봉기의 조직과 지도

김수길은 3월 8일 서문의 시장 거사를 하고 그날 밤 김천으로 잠행하여 3월 9일 김충환을 찾아가 대구 봉기의 소식을 전하고 3월 11일 김천 장날에 봉기할 것을 협의하고 배후에서 조직 지도하였다. 그러나 11일 주동자가 체포되어 불발로 그쳤으나 24일 김인수 등이 만세 시위를 벌였다. 3월 중순 김수길은 다시 개령면으로 잠입하여 그 곳의 농민 봉기를 조직 지도하여 4차에 걸쳐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4차까지의 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3월 24일에 김태길 등 기독교인

제2차, 4월 3일에 문정환 등

제3차, 4월 4일에 이득린 등

제4차, 4월 6일에 김임천(머슴) 등이 주도가 되어 만세 시위가 일어남.

### 나. 의성 비안 봉기의 조직과 지도

계성학교 학생인 박상동은 아버지 박영달(의성)에게 대구 봉기소식을 전하여 13일에 기독교인 등 200여 명이, 이날 밤 서부동에서 50여 명이, 16일 장날에도 만세 시위가 있었다.

### 다. 칠곡, 안동 봉기의 조직과 지도

3월12일 모교학생 이영식, 이내성이 주도하여 300여명의 군중이 인동면 진평동 뒷산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으며 14일에도 시위가 있었다.

## 7.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성 동문이 대구·경북지역의 3.1독립운동에 눈부신 활동을 한 것은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계성은 창설 당시부터 자유인 자유정신에 입각한 국민계몽에 있었던 것인만큼 계성인의 정신은 오직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3.1운동의 태동이 종교단체와 학생들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설립된 계성학교는 자연히 선봉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 계성학교는 급사부터 교감까지가 독립운동의 주동자였고 교정이 대구, 경북지방에서 첫 봉기가 일어난 서문시장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경북지방의 기독교인 및 유지들의 자녀가 계성학교에 많이 다녀 자녀들에 의한 대구 봉기 소식을 접하고 권유받아 많은 지방봉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실로 계성인의 3.1독립운동은 엄청남에도 정부의 표창이나 포상을 받지못한 계성인이 많고 그나마 그 장한 이름 석자도 남겨지지 못한 많은 계성의 애국 선배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

계성인! 계성의 정신은 영원할 것이고 언제나 우리나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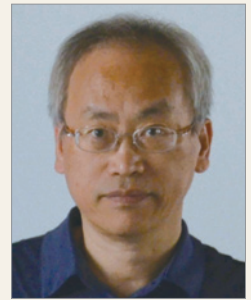


▲ 3.1운동 발생지 표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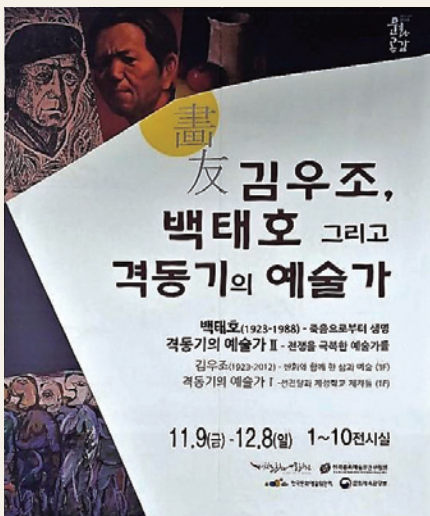


# 계성과 대구 근대미술

불굴의 예술혼을 꽃피운 김우조(30회), 백태호(30회) 재조명  
계성미술, 시대의 미학으로 다시 한번 감동을 주게해



**김영동** (63회)  
미술평론가  
한국미술평론가협회회원  
대구문화재단 이사



▲ 전시 포스터들 중 하나

제로 지난 한 달간(2018년 11월9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된 이 전시회는 원래 1950년대 전후의 격동기를 견뎌내며 불굴의 예술혼을 꽃피운 지역의 훌륭한 작가들을 조명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문화예술회관 1-2층 모두 10개의 전시실을 이용해서 펼쳐진 전시는 전체 4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 '김우조(1923-2010) -판화와 함께 한 삶과 예술', 제2부 '백태호(1923-1988) -죽음으로부터의 생명', 제3부 '격동기의 예술가 I -서진달과 계성학교 제자들' 제4부 '격동기의 예술가 II -전쟁을 극복한 예술가들'로 이루어졌다.

거의 30여명에 이르는 작고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 300여점이 출품된 이 야심적인 전시회는 문화예술회관의 담당학예사를 비롯해 지역의 연구자들이 1년 전부터 준비와 자료수집에 들어가 거둔 결실이다. 1940년대 초

모교 출신의 대구근대화가들을 위한 전시회가 성대한 규모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었다. 『김우조, 백태호 그리고 격동기의 예술가』라는 주

김우조와 백태호 등이 재학하던 당시 계성학교의 교지와 그들의 학적부 그리고 서진달 선생의 관련 자료들은 전시내용을 고증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필자 역시 계성학교 63회 졸업생으로서 전시준비 과정에 참여해서 텍스트 기술을 도왔고 특히 김우조 선생의 전시 파트는 직접 감독을 하며 전시를 완성시켰다.

결과적으로 전시에 대한 평가는 지역 미술계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김우조 선생의 판화 전작들은 우선 그 양적인 면에서 그리고 작품의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크게 감동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시 작품 중에는 그의 재학 중 교정을 스케치한 연필그림에서부터 습작기의 수채화 및 희귀한 1950년대의 판화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했다. 게다가 전후 격동기의 어려움을 극복한 향토 작가들의 생소한 작품들을 찾아낸 것은 사실 놀라운 성과라고 하겠다. 특히 김우조작가의 경우 다소 생소한 판화 장르로 개척한 그의 예술세계가 너무나 경이롭고 지난한 판각작업을 거친 작품들에 하나같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근대기 예술가들과 계성학교의 관계를 천착한 전시내용에서는 계성미술과 대구미술의 깊은 관련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계성학교와 대구 근대미술

대구 근대미술이 태동할 무렵인 1900년대 초반에 이미 계성학교는 일찍이 도화교사를 두고 미술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다.





▲ 전시장 내부



▲ 서동진 작 <거리풍경> 1920년대 말, 서동진은 1924년 한차례와 그리고 1930-36년 사이 계성학교에서 도화교사를 역임했다.

기록 속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은 시인 이상화의 형이기도 한 이상정 선생인데 그는 훗날 독립운동가 이상정 장군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로도 활동했었다. 그가 고쿠가쿠인대(國學院大學)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1917년 귀국해 1919년 3.1운동 전후까지 도화교사로도 복무했던 것이다. 그는 일본서 유학하고 돌아오면서 수채화 용구를 도입해 소개하고 계성학교서 도화 지도는 물론 1923년에 열린 대구 최초의 서양화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한 서양화가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의 여파로 1923년 말 중국으로 망명하고 1924년에 서동진이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계성학교로 돌아와 도화를 지도했다. 그는 3.1운동 직후 계성학교를 자퇴하고 상경하기 전까지는 앞서 이상정 선생으로부터 도화 지도를 받았을 것이다. 1930년에 향토회를 창립하며 대구서양화단의 중심으로 활약하던 무렵 다시 계성학교서 수년간 미술교육을 맡기도 했다.

1929년에는 대구서 최초로 동경미술학교를 유학하고 돌아온 김호룡(1904~1957)이 개인 작품 발표전을 가졌는데 그 역시 계성학교 도화교사를 역임했다. 한국 최초의 추상화가로 알려진 주경 역시도 도쿄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전 대구로 귀국해서 계성학교 미술교사를 맡으며 지역화단에 중진으로 정착했다. 해방 후에도 박인채, 손일봉, 정점식까지 중요한 근대미술가들이 계성학교와 인연을 맺었다. 이렇게 대구 근대미술이 시작한 역사는 바로 계성학교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계

성학교서 도화를 지도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들은 바로 대구화단 나아가서 한국근대미술사의 주역들이었다. 이번 전시의 맨 마지막 제9, 제10 전시실에서 이들의 작품들을 전시했다.

계성학교에 미술반을 조직하고 장래 화가들이 될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역시 동경미술학교를 유학하고 1941년 계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해 다수의 제자들을 길러낸 서진달 작가다. 서진달은 7년 동안 일본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대구로 귀환해서 1년 남짓 계성학교 교사로 머물렀다. 그의 지도아래서 배출된 학생들인 김우조, 백태호를 비롯해 추연근, 김창락, 변종하 등은 1950년대 초 대구미술의 신예들이었고 한국 근현대미술에 괄목할만한 위치에 선 작가들이 되었다. 그 무렵 계성학교 미술교사를 역임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이번 전시에 포함되었다.

### 서진달의 부임이 제자들에게 준 영향

서진달은 1941~42년간 계성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백태호(30회), 김우조(30회), 추연근(30회), 김창락(31회) 변종하, 이서우(32회) 등의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들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계성중학교 미술반 학생이었던 백태호는 서진달 선생을 만나 화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집안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스승의 도움으로 조부를 설득하고 1942년 일본으로 가서 이듬해인 1943년에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했다. 비록 전



쟁으로 인해 도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미술의 주제의식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김우조의 경우는 그는 1941년 선생의 권유로 동료 추연근을 모델로 그린 인물화 <책을 읽는 소년>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해서 입선의 성적을 거뒀다. 이를 근거로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었으며 해방과 함께 중등교사로 진출 개인 창작과 함께 미술교육에 힘쓰게 되었다.

변종하는 1942년 일본군 해군하사관 후보생으로 뽑히자 만주로 피신하였다가 또한 스승의 추천으로 신경시립미술원(新京市立美術院) 서양학과에 편입할 수 있었다. 당시 학생들의 습작 일부와 이들의 훗날 작품들을 제5 전시실 전시에 포함 작은 규모로 전시되었다.

서진달은 일본 유학 당시 세잔의 미술양식에 경도되어 자신의 화풍을 정립했는데 이런 그의 그림 스타일은 지도하던 학생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었다. 세잔 화풍으로 그린 그의 누드화들은 아카데미한 재현을 넘어 대상을 메스로 해석한 결과들을 내놓았는데 한국근대미술사상 한 위치에 자리매김 된다. 이번 전시에서 발굴한 김우조의 초기 수채화 습작들에는 이런 선생의 영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 김우조, 백태호 미술의 회고전

이번 전시는 1950년 전쟁을 전후한 대구의 격동기 작가들을 조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성 미술인의 대규모



▲ 서진달 선생이 지도하던 계성미술반. 1941년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우조, 서복섭, 추연근, 백태호. 뒷줄 왼쪽 이서우(유족이 전시도 중 사진 제공)

회고전이 된 셈인데 김우조 백태호 두 작가작가들의 유작전 및 그들이 결성한 해방 후 최초의 미술그룹인 '황토회' 기념 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황토회는 전후의 혼란과 궁핍 속에서도 지역의 토양에 뿌리내린 건강한 예술혼을 지켜내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매우 의미 있는 그룹이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미술의 영향 하에서 해방 후에는 다시 서구미술의 영향아래 종속되려는 우려 속에서 우리미술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던 단체다. 거기에 백태호는 창립 멤버로 김우조는 뒤에 핵심 위치에서 단체를 견인했던 장본인이었다.

1층 4개 전시실에 나눠 전시된 김우조의 작품은 모두 120여점으로서 그의 1950년대 말 판화제작의 시작 무



▲ 김우조 작 목판화 작품들. 돌과 바위를 모티프로 추상화를 진전시키던 때의 작품들이다.



렵에서 비롯해 70-80년대를 거쳐 성장 발전하면서 2010년 작고하기 직전까지 그의 전 세계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전개했다. 그의 작품들은 구상에서 추상으로 목판화에서 모노타입까지 다종다양하고 풍부한 변화 발전을 보여주었다.



▲ 백태호 작품 전시실 모습 (2층 제6 전시실)

백태호의 작품은 2층 3개 전시실에 전개했는데 1950년대 말의 유화와 1970-80년대 이후 캔버스 작업들이 집중적으로 출품되었다. 계성학교 시절 백태호는 뛰어난 사실묘사로 미술반 동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시대적 불운 탓으로 도쿄미술학교 유학을 중도 포기해야 했고 해방 공간에서는 이념적인 문제로 표현의 자유에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왕성한 창작력으로 활동하던 시기의 초기 작업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이유도 한때 부당한 간섭과 탄압에 의한 피해 탓 아닌가 싶다. 그나마 당시의 그림 분위기를 출판물 등에 남아 있는 삽화들로 짐작이 가능했다. 이번 전시에서 그런 자료 일부를 포함해서 그의 후반기의 그림들을 주로 제시했다.

백태호 선생의 대표작은 그의 정물화들 중에서 역시 ‘명태시리즈’로 꼽힌다. 만년에 찾아온 건강상의 불운은 그의 그림 세계를 독특한 미학으로 이끌었다. 고협압으로 한 번 쓰러진 몸을 다시 일으켜 진력을 다한 마지막 시기의 작품들이 ‘날아오르는 명태’, ‘소리치는 명태’ 등의 주제로 발표되면서 불굴의 예술혼을 점화시킨 듯 잠재했던 표현력을 거침없이 드러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이 전시의 마지막 단계인 나머지 제9, 제10 두 방에서 그의 친형이자 황토회 그룹의 좌장인 배락종의 그림이 새롭게 선보이면서 화우로 맺어진 두 형제의 예술세계를 돋보이게 했다. 그동안 서구미술에 맹종하며 좌고우면하던 줏대 없는 미술 속에서 강인하면서도 질박한 작품의 개성들이 ‘시대의 미학’으로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백태호 작 '명태시리즈' 중 한 점



백태호의 형 백락종 작 철조망



김우조 작 목판화 '고목'





# 총동창회 소식





## 제4회 계성가족 한마음 트레킹

본회가 주관한 ‘제4회 계성가족 한마음 트레킹’이 지난 4월 7일 대신동 모교교정에서 320여 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한 개회식을 엮었다.

8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한 동문들은 모교를 출발하여 10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곶에 도착 이재운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는 많은 동문들이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호미곶 트레킹으로 피로한 심신을 달래고 단합된 동문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를 가졌다.



## 총동창회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

지난 9월 11일 덕영치과병원 대연회장에서 2018년 동창회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가 80명의 동창회 부회장 및 각 기수 대표가 참석하여 체육대회 논의 등 동창회 기타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는 동문들의 질의를 동창회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올해 동기회 결성을 앞둔 88회 동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제2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축구대회

전통의 계성축구를 사랑하고 부활을 꿈꾸는 계성동문 축구회가 주관한 제22회 총동창회장배 기별축구대회가 맑은 날씨 속에 개최되어 계성의 역사를 지키려 하는 동문들의 애교심에 힘입어 벌써 22회 대회까지 치러지고 있다.

사실 모교 축구부가 1975년에 재 창단되어 1981년에 해체 되었으나 동문들의 축구에 대한 열망으로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는 예전보다 참가 기수의 수가 줄어들어 아쉬움이 컸다.

100여명의 각 기별 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가운데 이번 대회 입상 성적은 아래와 같다

· 우승 : 78회 · 준우승 : 72회 · 3위 : 82회



## 제25회 총동창회장배 바둑대회

지난 6월 17일 한국기원에서 치러진 총동창회장배 바둑대회는 이재운 총동창회장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금을 전달하는 순서로 시작되었다. 동창회장의 한결같은 지원으로 벌써 25회 대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후배기수들의 참여 저하로 YB기수로는 유일하게 72회동기회가 참여, 우승하는 기쁨을 가졌다. OB우승은 64회동기회, 준우승63회, 3위는 58회, 59회가 공동수상하였다.





## 제26회 총동창회장배 기별테니스대회, 78회가 주관

2018년도 총동창회 테니스대회는 테니스 동호인의 감소로 인하여 다소 힘든 대회를 치렀다. 대회 개최가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다행히도 내년 주관기수인 78회가 발 벗고 나서 힘겹게 개최된 경기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이날 대회는 9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OB우승은 64회, YB우승은 대회를 주관한 78회동기회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78회 동기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



## 총동창회장배 기별 등반대회

2018년 5월 20일 총동창회 기별등반대회가 남구 대명동 앞산 자락에서 이재운 총동창회장, 류청웅 성록회(산우회 원로 모임)회장, 오상달 계성산우회장, 원로동문 각 기수 대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 대회성적은 OB는 65회동기회가, YB는 70회동기회가 우승했다.





## 대구·재경동문, 합동산행

2018년 10월 20일 해마다 이어져오는 총동창회주관 ‘대구·재경 합동산행’이 충청남도 계룡산 갑사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는 이재운 총동창회 회장을 대신하여 김정길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대독을 했으며, 전진우 재경회장등 동문 130여 명이 참석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대구·재경 산우회가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고 개회식 후 공동산행을 실시하며 동문의 우의를 다졌으며, 특히 총동창회장은 이날 대회에 샴푸 등을 기증하며 자리를 빛냈다.







계성중·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 동문동정

## 이시원(50회)

### 영남대에 <이시원 강의실> 조성

이시원(50회) 동문이 지난 4월 모교인 영남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는데 이어 이시원 동문의 이름을 단 <이시원 강의실>이 문을 열었다.

이날 이 동문은 “오늘 제 이름을 단 강의실이 조성되어 너무도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함인석(55회)

### 포항의료원장 취임



신임 포항의료원장에 함인석 동문이 취임하였다. 함 동문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수사과학대학원 원장직을 맡았으며 제17대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봉사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 정인조(58회)

###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협의회장



플랜트 검사·감리 업체인 글로벌 21(주)의 대표이사이자 공익 모금 단체인 (사)부천희망재단의 이사장과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이사를 맡고 있는 정인조(58회) 동문이 7월 30일자로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협의회장 임명을 받았다.

## 장지상(60회)

### 산업연구원 원장



국내외 산업과 무역통신 분야를 연계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간의 제21대 연구원장에 장지상 동문이 임명되었다. 장 동문은 경북대 통상학부교수,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경북대 경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을 지냈다.



## 최종삼(61회)

### 홈앤쇼핑 대표이사

전 한국케이블TV 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최종삼 동문이 홈앤쇼핑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최 동문은 LG그룹 회장실, LG홈쇼핑 최고재무책임자, GS올산

방송 대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 이재직(64회)

### 한국폴리텍대학 신임 교학처장



이재직 동문이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신임 교학처장에 임명되었다. 1986년부터 한국폴리텍대학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 동문은 현재 경북교육총연합회 부회장, 경북농구협회 부회장, 경북기능봉사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이병환(64회)

### 성주 군수 당선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민선7기 제70대 성주 군수에 이병환 동문이 당선되어 4년 동안 성주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그동안 영주시 부시장, 경상북도 의회 사무처장등을 거치며 35년 행정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행정과 성주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김희섭(64회)

### 수성구의회의장



김희섭 동문은 6월13일 지방선거 수성구의원 선거 수성구가(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선거구에 출마 1등으로 당선, 재선되었다. 경북대를 졸업한 김 동문은 대구민주시민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였으며 민주통합당 대구시 당위원장을 거쳐 이번 수성구 의회 의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장유석(65회)

### 경상북도의회 회장당선



경상북도의회 신입회장에 장유석 동문이 당선되었다.

하양에서 개원 중인 장 동문은 취임소감에서 “임기동안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소신진료, 편안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강면욱(65회)

### DGB 자산운용 대표이사



DGB자산운용 대표이사에 강면욱 동문이 내정됐다.

성균관대를 졸업한 강 동문은 매리츠자산운용 사장, 국민연금 본부장 등을 거쳤다

## 권준수(65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정신신경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권준수 동문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으로 발령받아 2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 김동욱(65회)

### 한국행정학회 회장 취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동욱 동문이 한국행정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입학회장에 당선

취임했다.

## 송국선(65회)

###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재)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에 송국선(경북도립교향악단 수석단원) 동문이 공모를 거쳐 내정되었다.

대구경북연합타악예술협회 총감독을 맡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과 지역민들의 생활예술지도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임인사를 전했다.

## 김성근(65회)

### 교육부학교정책실장 내정



신임 교육부학교정책실장에 김성근 동문이 내정되었다.

김 동문은 대통령자문교육혁신회 상임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교육행정관,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으로 역임한 바 있다.

## 공정섭(67회)

###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2018년 3월 22일에 개최된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공정섭(67회) 동문이 신입회장으로 당선 취임했다.

## 차경택(68회)

### 강원 태백경찰서장



경찰대 1기로 졸업한 차경택 동문은 1985년 경위로 입문해 태국 대사관 1등서기관, 경기청 연천서장, 의왕서장, 경찰대학 기획협력과장 대전청 보안과장 등을 거쳐 2018년

8월 인사에서 태백경찰서장에 취임했다.



## 박화진(69회)

### 경찰청 외사국장



그동안 대통령실 치안비서관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고 경찰교육원장에 재직 중이던 박화진(치안감) 동문이 2018년 11월 29일 이루어진 치안감 정기인사에서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발령받았다.

## 반용석(69회)

### 국제로타리 3700지부 총재 취임



대구·경산·청도·칠곡·고령·성주 관장하는 국제로타리 3700지부 2018~2019 총재에 반용석 동문이 취임하였다. 그동안 “아너소사이어터”가입 등 지역에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해온 반용석 동문은 “세상에 감동을”이라는 국제로타리 표어에 걸맞게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서재용(69회)

### 대구고등학교 교장



서재용 동문이 지난 9월1일 대구고등학교 교장에 발령받아 부임하였다. 그동안 경북고, 대구고 교감, 포산고 교감, 등을 역임하고 이번 공모제 교장에 지원 부임하여 “스스로 꿈을 키우는 학생 신뢰와 존경을 받는 스승, 자랑스럽고 오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박정렬(69회)

###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장

고용노동부 근무 중인 박정렬 동문이 이번 인사에서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 이진복(69회)

### 대구지방공인회계사 회장



이진복 동문이 지난 6월 20일 호 텔라운제나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13대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장으로 선출되어 12대에 이어 연임하여 앞으로 2년 동안 대구공인회계사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이끌어가게 되었다.

198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대구시의회 및 관 세청 자문위원등을 맡았고 현 계성총동창회 감사이기도하다.

## 윤영돈(70회)

### 영주 소방서장



2018년 7월 영주소방서장으로 취임한 윤영돈 동문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앞장서겠다” 면서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소감을 전했다.

1995년 간부후보 8기로 소방공무원에 입문해 그동안 경북소방학교 총무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울진 소방서장 등을 지냈다.

## 황대일(70회)

### 육군3사관학교 교장



황대일 1군사령부 참모장(육군소장)이 2018년 12월 28일부로 육군3사관학교 학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황동문은 육사43기로 졸업하고 87년 소위로 임관 한 후 그동안 9사단장, 1군사령부 참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사령부 참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박은식(70회)

### 강원 평창경찰서장



평창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박은식 동문은 고려대법학과 출신으로 1999년 간부후보로 경찰에 입문 그 동안 서울청 21기동대장, 경리계장 강원청 청문감사담당관, 치안지도관을 역임하고 제65대 평창경찰서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 이정희(71회)

### 창원지방법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과학수장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정희 동문이 법원인사에서 제36대 창원지방법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받아 취임하였다.

이정희 동문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검 공안1, 2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거쳤다.

## 김종철(71회)

###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



육군사관학교 44기를 졸업한 김종철(육군소장) 동문은 1군단 참모장과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을 역임하고 보병 제7사단장으로 재임 중인 김종철 동문이 2018년 12월 4일 이 임식을 가지고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이규문(71회)

### 경찰청 수사기획관



대구·경북 최초의 경무관 서장을 역임한 이규문(경무관)동문이 이번 경찰청 인사에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동안 이규문 동문은 경찰청 수사강력계장, 65대 봉화서장, 대구성서경찰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살며, 생각하며



## 팔순에 부르는 ‘은빛 메아리’



김재양 (44회)

사전에 금빛은 ‘황금의 빛깔’, ‘금색’이라 정의 했고, 은빛은 ‘은과 같은 빛깔’, ‘은색’이라 정의 한 것을 보면 아마도 금색은 변하지 않는 색깔의 대명사로 쓰이고 은색은 변할 수 있는 색깔의 대명사로 쓰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누런색, 노란색이나 노랑으로 쓰면 될 것을 황금빛깔이나 금색으로 쓰는 걸 보면 황금을 염원하는 마음들이 큰 모양이리라. 하지만 가변성인 은빛은 표현하기 나름이기에 은빛 또는 은 색깔 이외에는 구태여 모양을 낼 말이 없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긴 하다.

1999에서 2000년, 아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 세상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교육계는 정년이 3년이나 당겨지면서 조기 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사들의 반대를 잠재우기위해 명예 퇴직금을 두둑이 챙겨 주면서 환갑도 맞지 못한 선생님들도 퇴직금과 함께 은퇴시켜 버렸다. 그러니 사범학교를 졸업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했던 선생 후보자들이 직장을 얻고, 그들의 임시 직장에서 학교로 옮긴 그 자리에 또 자리가 생기고... 그런 와중에서 희망찬 21세기가 열렸다.

〈합창단 은빛메아리〉도 그렇게 어수선했 바로 그때 출발했다.

초등교사로 교계에 투신해서 대학 총장으로 은퇴하신 교육계원로를 포함한 음악을 사랑하는 몇몇 분들이 모여 만 60세가 넘는 남자들만의 합창단을 태동시켰는데 퇴직교사들이 태반이었다. 1999년 9월 대구원로음악인회 회원들과 창단 발기인들이 모여 〈합창단 은빛메아리〉라 이름 짓고, 지휘는 대구원로음악회 회장인 나경관 선생으로, 반주는 대구대 교수인 김관일 선생으로 하고, 20여명의 남자들이 2000년 3월에 다음과 같은 ‘창단취지’를 밝히고 첫 모임을 가졌다.

〈‘은빛 메아리’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었다. 노인은 일을 그만 둔 것이 아니라 후진에게 물려주었을 뿐 결코 중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덕성을 높

이고 가정과 사회 질서를 확립하여 나라 사랑의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온 누리에 메아리쳐 갈 것을 기대하여 ‘은빛 메아리’라 이름 지었다. 이를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 되도록 노래를 부른다. 한 소리를 내어 한 마음 되기 위함이고, 합창으로 협조와 조화의 정신을 굳히기 위함이다. ‘합창단 은빛 메아리’로 이름 붙인 것은 합창뿐만 아니라 ‘은빛 메아리’란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각종 일을 해 나갈 때 ‘봉사단 은빛 메아리’, ‘위문단 은빛 메아리’, ‘장학회 은빛 메아리’, ‘후원회 은빛 메아리’ 등으로 발전할 것을 꿈꾸며, 우리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다스나마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우리의 염원이다....>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하필 ‘은빛 메아리’로 이름 지은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아주 많다. 서두에서와 창단 취지문에서도 밝혔듯이 은빛은 가변성이기 때문이다. 고인 물이 썩듯, 세상만사 발전하려면 쉼 없이 변해야한다.

우리 은빛합창단은 노인네들의 모임이니, 만 18년 동안 지휘자 다섯, 반주자 셋만 바뀌었지, 젊은 합창단이었으면 더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번 연주회는 정기연주회가 아니고 가족사랑 음악회로 열려고 했는데, 지휘자의 고집으로 정기연주회를 뺐진, 자선 연주회의 결과를 얻었다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과거에는 대구시장의 배려로 예산지원을 받아 히로시마로 공연도 갔었고, 히로시마 합창단을 초청하여 한일 교류도 했었다. 그러나 단원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정기연주회도 격년제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예산 없이 가족과 즐기는 연주회로 만족했다. 어김없이 이번 연주회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단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불우이웃 돕기 자선 연주회를 감행했고, 성공적으로 마쳐, 은빛의 메아리가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을 단원들의 마음을 가볍게 비우는 계기가 되어 모두 기쁘기 한량없다.





## 살며, 생각하며

## 올바른 습관과 건강



박경우 (44회)  
(전)성광고교장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는 70% 이상 본인의 책임에 달려있다고 한다. 보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의 30%만이 유전과 관련이 있고 50%는 개개인의 생활방식, 나머지 20%는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능력에 좌우된다고 한다.

이처럼 개개인의 생활방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불규칙한 식사, 수면습관,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다. 이런 생활이 결국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과 같은 성인병을 얻게 된다. 이런 병들은 잘못된 생활습관에 기인한다 해서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린다. 생활습관병이 심각해지면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젊은 시절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살다 보면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또 젊었을 때는 건강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몸을 혹사하기도 한다. 그 결과 장년기 또는 노년기에 그 후유증이 나타난다. 심장마비, 뇌졸중 등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돌연사가 그러한 것이다.

생활습관병의 특징은 만성질환이라는 점이다. 발병하면 회복이 힘들다. 치료비도 많이 들게 된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당뇨와 고혈압, 치매와 심장병 등 몇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나 노년의 삶이 매우 어려워진다.

100세 장수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것' 아니라 '얼마나 품위 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바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습관으로 중요한 것 3가지를 꼽는다면 올바른 식습관, 운동습관, 금연과 절주 등이다. 짠 음식을 피하고 쌀, 설탕, 밀가루 등 당질성 음식을 적게 섭취해야 한다. 탄수화물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단백질 보충을 잘 해야 한다. 식물성 단백질인 콩, 두유와 기름기가 적은 오리고기, 소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테일 브레드슨 저 『알츠하이머의 종말』에서는 케토플렉스 12/3원칙을 지킬 것을 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2는 저녁을 먹은 후 다음 날 첫 끼를 먹을 때까지의 공복 시간이

열두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3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적어도 세 시간은 지난 후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잠자기 전에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췌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에도 좋지 않다고 한다.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낮아진다. 그리고 치매도 더 늦게 나타난다. 운동은 몸 전체의 생리적 변화를 통해 경이로운 효과를 일으키는 약물과 같다. 운동의 거시적 효과는 심장과 뇌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늘리고 근육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

독일 뉘른베르크 잘란트대학교 의료센터의 크리스티안 베르너(Christian Werner)와 라우프스(Ulrich Laufs)는 소규모 집단에 세 종류의 운동을 적용하여 운동이 텔로머라아제의 텔로미어 회복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과 또 어떤 운동이 건강에 더 좋은지를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두 종류의 운동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번에 45분씩, 일주일에 3번 적당한 유산소 지구력 운동과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었다. 유산소 지구력 운동으로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 운동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많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활습관으로 흡연을 들 수 있다. OECD 국제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9.1%로, 조사대상 10개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백해무익한 흡연은 혈관을 망치는 주범이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딱딱해지는데 이는 동맥경화증으로 발전 될 가능성을 높이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유발한다고 한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서는 음주량을 성인 남성은 2잔, 성인 여성은 1잔 이상 마시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는 알코올성 간질환, 치매, 심혈관계 질환 등을 비롯해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마시는 것보다는 마시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나는 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나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되는 서적을 구하여 읽던 중 대구의 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건강관리 최고 지도자 과정’수강 신청공고를 보고 수 십 만원의 수강료를 들여 3개월 수강을 했다. 그 후로부터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특강도 하고 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을 바꾸거나 할 때는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담하고 지시에 따라서 하시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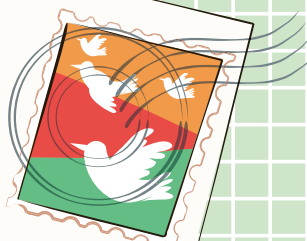
끝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 큰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건강하시기 바란다.







## 기별 소식



44회

회장 김재양 총무 백일현

졸업60주년 행사를 마친 44회 동기회는 해마다 동기모임을 하고 있는 최고 선배기수로써 올해도 변함없이 12월 21일 영남별장에서 30여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가졌다.

2019년에는 백일현 현 동기회장이 총무로 김재양 총무가 신임 회장을 맡아서 한해를 수고하기로 하는 등 신임 임원단을 선출하고 식사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48회

회장 류청웅 총무 이종택

12월 19일 시내 티파니식당에서 20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최태조 동기의 기도로 시작하여 회장 인사 결산보고 총동창회장 감사패 전달 만찬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기도에는 “친구들의 건강과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같은 남은 삶”을 축복해 달라는 기도가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48회 동기회는 매월 모임을 가지면서 동기의 정을 돈독히 나누고 있다.





## 49회

회장 한영기 총무 조영구

2018년 7월 6일 계성49회 동기회 만남의 날 행사가 40여 명의 동기생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되었다. 회장 한영기 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동기들에게 앞으로 24년 후 100세가 되는 해에 오늘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서 동기들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희망을 붙여넣어 달라”고 말하자 많은 박수와 함께 이날 축사에 갈음했다. 이어 만찬시간을 가지며 돈돈한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50회

회장 김봉호 총무 유수광

지난 10월에 김봉호 동기회장 이하 28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충주호에서 유람선 탑승으로 가을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야유회는 화기애애한 환담의 꽃을 피우는 가운데 친목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18일에는 들안길 울진참가자미숫집에서 가진 송년회에 35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참석한 동기들은 앞으로의 건강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며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 51회

회장 한민창 총무 최윤호

12월 15일 동기회 사무실에서 15명의 동기 참석하 가운데 2018년도 동기회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2018년 결산보고 총동창회 회장 감사패 수여,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 하였다.

- 51산우회 :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는 장수 동호회로 지난 11월에는 동기 부부 40명이 참석하여 포항 호미곶 일원을 일주하는 행사를 가졌다.







## 52회

회장 서정환 총무 조영복

52회 동기회는 2017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연례행사를 분기별로 참석하여 서정환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모임을 시작 하였다. 한편 4월 30일 동기회 봄나들이 행사로 대구-서울 동기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 주왕산 산행을 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 53회

회장 김대관 총무 배중규

12월 27일 한해의 마지막 목요일 이재운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53회동기회 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한해를 수고한 김대관 동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친구들이 30년만 더 살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회장을 한 번 더 맡고 싶다”며 친구들 건강을 당부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 54회

회장 이무원 총무 우진권

12월 14일 덕영치과병원 7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39차 동기회 총회 및 송년회에 72명의 동기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진행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최병연 동기가 이임하고 신임 이무원 동기가 2019년 회장에 선출되었다.

특히 이날 이재운 총동창회장이 참석하여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3월 연휴 첫날 회원 43명 가족16명이 참가하는 “봄 축제” 라이브 업 행사과정을 통해 노년의 품격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오찬과 덕담의 소통의 장을 열고 게임과 행운권 추첨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55회

회장 김효일 총무 정상환

지난 11월 30일 동기회 졸업50주년 및 송년의 밤 행사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90여 명의 동기생, 가족, 이재윤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에는 동기회장 인사 동창회장의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고 2부 축하공연에는 손성모 동기의 사회로 박경호 동기의 자녀로 구성된 가야금과 국악 향연에는 손성모 동기의 자녀 및 제자들의 댄스와 가곡 열창으로 꾸며졌다. 3부에는 만찬을 즐기며 졸업 50년을 추억하는 동영상 시청과 박수항 동기의 밴드 연주에 맞추어 회원들의 노래 솜씨로 열정적인 밤을 보내는 행사로 장식하는 순서로 진행 되었다.



## 56회

회장 송창호 총무 최돈문

3월 30일 자금성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가지며 시작한 56회 동기회는 지난 5월 1일 산동성식당에서 춘계모임을 가졌다. 11월 11일에는 가을야유회로 경남사천시 서포면 위치한 비토섬으로 나들이를 다녀오며 끈끈한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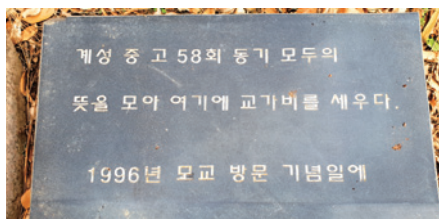




## 58회

12월 14일 인터볼고호텔 더 뷔페에서 동기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80여명의 동기 부부가 참석하여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이어 만찬의 시간을 가지며 친목을 다졌다.

특히 이날 이재윤 총동창회장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수고한 김창곤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하고 지나간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격려사에 갈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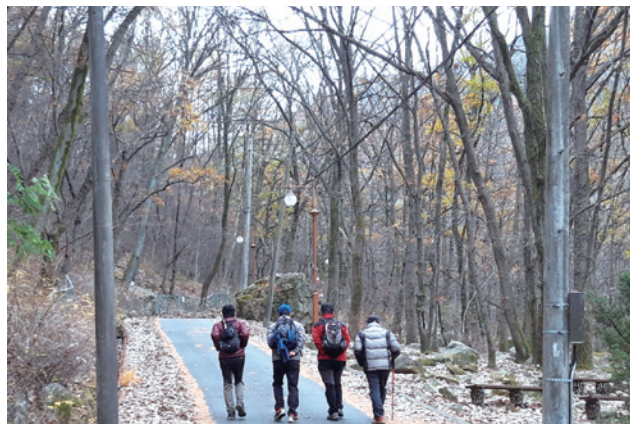


『1996년도 58회 모교방문행사에 모교에 기증한 비, 대신동모교 외진 자리에 방치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 59회

회장 추교원 총무 김광재

2019년 1월 5일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추교원 동문이 2019년 회장직을 맡아 수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산우회는 매달 넷째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의 우애와 고교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산행을 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는 강원도 눈 산행을 계획하고 있다.





## 60회

회장 박병진 총무 이진팔

2018년 이제까지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작년부터 시작된 동기회 정기총회 및 야유회를 겸하여 12월 1일 청송에 소재한 중앙산에서 박병진 동기회장을 비롯한 48명의 동기생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총회 겸 등반을 하는 등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다.



### 〈60회 파크골프 동호회〉

11월 23일 60회동기회 소모임으로 파크골프 동호회를 창립하여 첫 훈련을 가졌다. 윤재호 동호회 회장 이하 17명의 동기가 참가하였고 매달 4째 화요일 수림지 파크골프장에서 모임을 갖기로 정하였다.



## 61회

회장 류인걸 총무 최치식

계성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가장 적극적이며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61동기회는 2019년도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총회 및 송년회를 12월 20일 동기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17대 양담영 동기회장에 이어 18대 류인걸 동기가 총무에는 최치식 동기가 수고하게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동기들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해 동호회 활동인 골프, 바이크, 등반, 반창회 등 적극적으로 지원 시행하고 있다.



### ■ 2019년도 61회 동기회 운영방향 ■

1. 계성총동창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 우리 61회 동기회 자체행사도 알차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3. 동기들의 경조사를 꼭 챙기며 어려운 동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4. 타 지역 동기회의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62회

회장 김태현 총무 구철교, 방인덕

11월 30일(금요일) 정기총회 및 송연회가 그랜드호텔 진행되었다. 이날 서울에서 포항에서 참석한 친구들을 포함하여 80여 명이 참석하여 동기회장의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 및 동기소개 순으로 시작된 총회는 이재운 총동창회장님의 축사 감사패 전달 감사보고 신임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 되었고 3부 여흥의 시간 교가제창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 〈62회 백봉산우회〉

- 2018년 1월 : 시산제
- 2018년 5월 : 총동창회 등반대회
- 2018년 10월 : 총동창회 합동산행



## 63회

회장 채동휘 총무 이윤하

언제나 늘 화려하게 비쳐지는 63회 동기회가 올해도 변함없이 90여 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라온 제나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32대 회장에는 채동휘, 수석부회장에는 박성호 동기를 선출하고 총무에는 이윤하 동기가 지명되었다.

한편 이날 2부 송년의 밤 행사에는 『60대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황금동 소재 권오중내과의원 권오중 박사의 특강을 들으며 99세까지 88하게 동기회 활동을 하기를 바라며 건배 하였다.



### 〈63회 지부연합등반대회〉

4월 22일 청주시 구룡산 일원에서 열린 『63회 지부연합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매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기 107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자리를 가지며 장래 동기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하며 63회의 명성이 아직도 건재함을 과시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 〈인문학 강좌 개최〉

빡빡한 사회활동 속에 건조해진 동기들의 인성에 양식이 되는 인문학강좌를 동기인 저명한 철학교수들을 초빙하여 강좌를 가졌다.

- 7월 19일, 정병석 교수 『주역이란 무엇인가』
- 11월 23일, 박성호 교수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 64회

회장 김 완 총무 심규일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동기회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최근 활기차게 활동하는 64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3일 (목요일) 신천동 소재 <고향집 칼국수> 별자리 카페에서 40여 명의 동기생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오근훈 동기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하고 10월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 같이 앞으로 더욱 더 단합되고 발전하는 동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64회 동기회 친선골프대회〉

10월 21일 합천 아멜스콧 CC에서 64회동기회 단합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 65회

회장 권태영 수석총무 서석태

졸업40주년을 맞이하여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치러진 65회 졸업기념 행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기생 등 156명의 동기들이 대거 참석하여 40년만의 (1박2일 수학여행)으로 성공리에 마쳤다.





많은 동기들의 협찬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준비하는 과정은 다소 힘들었지만 남병헌 동기회장과 총괄준비단장인 김진걸 수석총무 및 송기정 기획총무 그리고 각반 반장들로 준비위를 구성하고 경주에서의 1박2일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8일 라온제나호텔 보르뚜나 홀에서 열린 총회 및 송년회에는 70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2018년을 결산하고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였다. 이날 신임 회장에는 권태영 동기가 수석총무에는 서석태 동기가 선임되었으며 특히 이날 총회에는 이재윤 총동창회장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수고한 전임 남병헌 동기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회 후 2부행사에는 40주년 행사에 못 다한 아쉬움을 나누며 저물어 가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기약하는 뜻 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 〈65회 스크린골프동호회 창립〉

12월 15일 회원 15명이 모여 65회 스크린 골프 동호회를 창립하였다.



## 66회

회장 장용원 총무 이길재, 정철훈

2019년도 졸업 40주년을 준비하는 66회 동기회는 12월 1일 감삼동 소재 테라스 스시 뷔페에서 37명의 동기가 모여 지난 1년을 결산하고 회고하는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활발하게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 추경호 동문과 포항에 거주하는 동기생들도 다수 참여하여 더욱 더 뜻 깊은 자리를 가지는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장용원 회장이 남은 임기 1년을 수행하게 되었다.





## 67회

회장 김수봉 총무 김경찬

11월 30일 죽전동 소재 성주 옛 고을 식당에서 30여 명의 친구가 참석한 가운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가지며 2019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동기회가 될 것을 약속하였으며 김수봉 현회장이 유임하며 한 해를 더 봉사하기로 했다.



## 68회

회장 손원배 총무 정영표, 김준한, 김진태

2018년 12월 7일 두산동 <밥상머리>에서 동기회 송년회를 열었다.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 속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식수는 최진태 총무의 맛깔 나는 사회로 진행된 바, 회장 인사, 경과 보고, 자기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에게 임재식 동기가 찬조한 기념품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어서 저녁을 나누며 소회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동기애를 보여주었다. 연말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는 예광수 동기의 특별한 손재주(?) 시연, 성주는 동기의 중후한 보이스와 운치 있는 노래가 있었기에 더욱 훈훈한 연말 송년회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2019년엔 더욱 많은 동기가 참여하는 발전된 모습이 기대해 본다.

평소 참여 인원 수가 많은 외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매 행사 때마다 동기애가 한층 돈보이는 모임 분위기를 연출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① 7월 22일 정기모임에서는 삼복더위를 이기는 삼계탕 데이의 날로 정해 참석 동기들의 시식과 부인들을 배려한 삼계탕 포장 선물로 생업에 지친 심신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② 10월 14일, 계성총동체육대회에서의 행운경품추첨 대상 부문에서 서철우 동기가 '46인치 LED TV'를 차지하는 행운을 누렸다.





③ 계성68산우회(회장: 김덕수, 산대장: 예광수, 총무: 정연수)는 2011년 3월 첫 산행 이후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는 결과, 최근 12월 1일 지리산 중산리 원점 회귀 산행을 포함하여 총 92회차 등반 경험이 가져다주는 오감만족의 즐거움과 체력증진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④ 계성68당구동호회(회장: 은영기, 총무: 정영표)는 2018년 1월 첫 당구모임 이후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10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친선을 다지고 있다.



## 69회

회장 손병은 총무 김원조, 박중근, 이병철

69회동기회는 매월 동기회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3월 19일 1차 이사회를 <동양수산>에서 시작하여 근대역사투어, 격월로 월례회를 가지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2월 총회에서는 이필환 회장에 이어 손병은 동기가 새로운 한 해를 이끌게 되었고 재경69회동기회도 12월 13일 양재동 <느린마을>에서 한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회장에는 임현철 총무에는 권영혁, 객인걸 동기가 새 회장단에 선임되었다.



### 안재갑 동문 모친 모교장학금기탁

작년 모교 사랑 실천으로 장학금을 모교에 기탁한 안재갑 동문에 이어 지난 9월 6일에는 모친께서 친히 모교를 방문해서 아들의 모교에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진 가운데 안재갑 동문 모친



## 70회

회장 류창열 총무 김진혁

2018년 1월 25일 수성구 화중반점에서 신년 집행부 회의를 가지고 주요 안건 심의 및 동기회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설날 번개모임을 시작으로 상반기 정기 이사회 동기단합대회 재경체육대회, 번개모임, 동창회 체육대회에 이어 2018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지



## 기별 소식

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앞으로도 임원단은 100명 아니 200명의 동기가 모이는 그날까지 동기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71회 회장 송건호 총무 김상균, 김유석

2018년 12월 15일, 정만현 동기가 운영하는 신라뷔페 2층에서 80여 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총동창회 오달현 사무총장의 총동창회장의 격려사 대독에 이어 2년 동안 동기회 발전에 매진하고 수고한 김호식 동기에게 감사패 전달을 하며 격려했다.



2019년에는 송건호 동기가 회장을 총무에는 김상균, 김유석 동기가 수고하게 되었다.

## 72회 회장 박명훈 총무 오창훈, 김종률, 이병규

2018년 6월, 재경체육대회에 대구 동기 30여 명이 상경하여 응원전을 펼치는 등 동기화합을 이끌어내고 축구, 골프, 바둑, 테니스 등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는 등 성적을 바탕으로 10월 총동창회 체육대회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1월 24일에는 50여 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마치며 신임회장에는 박명훈 동기를 선출했다.







## 73회

회장 이강전 총무 박상철, 최창열

1월 26일 신년회를 시작으로 4월 족구대회, 5월 축구,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등 동호회 대회에 참석하는 등 동기단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73회 동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라온제나호텔에서 동기회 정기총회를 80여 명의 친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치고 이강전 동기가 새로운 한해를 이끌게 되었다.



## 74회

회장 이성민 총무 이현곤

12월 21일 본리동 <제니스뷔페>에서 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지고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행사를 가졌다. 약 50여 명의 동기 부부가 참석하여 동기회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기회장에는 이성민 동기가 내년까지 봉사하기로 하였으며 이어 2부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 75회

회장 김정수 총무 황선관

졸업 30년을 맞이한 75회 동기는 2018년 10월13~1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수안보 조산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60명의 대구, 재경 동기들이 참석해 여정을 풀고 버스로 이동하여 문경 오미나라에서 오미자 와인 체험 및 시식을 하였으며 점심은 65회 선배가 운영 중인 <문경산채 비빔밥>에서 식사 시간을 가진 뒤 행사장으로 이동, 3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푸짐한 경품과 초청한 공연팀의 공연으로 분위기는 최고조 달하며 흥겨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14일 오전에는 월악산 만수계곡 탐방에 이어 문경으로 이동 점심식사 후 헤어지는 일정으로 졸업30주년 행사를 마쳤다.





## 77회

회장 김영민 총무 박충호, 우준하

‘계성 최강의 77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선배들을 능가하는 조직력을 선보이며 동기회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3월 동기회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마라톤대회, 동기 야유회, 테니스대회 등 동창회 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며 지난 10월 동창회 체육대회에는 타기수를 능가하는 경품잔치로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기수다. 12월 8일 본리동 <전원숏볼갈비>에서 정기총회를 가지고 그동안 수고한 조상우 동기가 바톤을 김영민 동기에게 넘겼으며 이어 1년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8일 정기총회



마라톤대회 참가



동기회야유회



총동창회 체육대회참가



## 78회

회장 이철승 총무 김진하

78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매월 정기모임을 시작으로 한 해를 알차게 보냈다.

특히 올해는 총동창회 행사 중 참가 기수의 미비로 인하여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총동창회 회장배 테니스대회를 주관 하여 동기회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으며 테니스대회 우승과 10월 체육대회에는 YB팀 준우승을 차지해 78회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12월에는 송년회를 가지며 내년을 기약하였다.



## 80회

### 3학년 12반 반창회

전국 고교 중 처음으로 시작하고 계성학교의 오랜 역사와 전통인 HOME COMING DAY를 2018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80회 동기 중 졸업 당시 3학년 12반이었던 15명이 재학 시 담임인 윤위한 선생님을 모시고 <반창회>로 모임을 가졌다. 공식적인 모교 방문 행사를 갖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던 중 이번 12반 학생들로 구성되어 모교 방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김주홍 동기의 사회로 시작하여 김영환 동기의 기도, 현창용 교장선생님의 축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비록 적은 인원이 참





석하였으나 뜻 깊은 행사로 이어졌다. 특히 이날 모인 동기들의 작은 성의표시로 모교에 300만의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고 뒤늦게 도착한 5명의 동기가 합류한 가운데 우정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 모교를 추억하는 회식 자리를 가졌다.



## 82회

회장 권혁태 총무 이태우, 김종현, 이호림

올해로 동기회가 결성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기회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매년 성장함하고 있다. 82회 동기회는 2018년 12월 8일 죽전동 소재 <더킹덤 뷔페>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는데 동기 및 가족 93명이 참석, 서로 동기애를 쌓으며 행복한 시간을 함께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수고한 김동욱 동기회장에게 총동창회장의 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 또한 2019년도 동기회를 새로 이끌어 나갈 권혁태 신임회장의 격려를 위해 오달현 사무총장이 참석해 동기회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특히 이재운 총동창회장님의 격려사와 후배를 사랑하는 격려금의 선물도 제공해 매년 성장하는 82회 동기회에 큰 힘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배들의 아낌없는 격려를 바라고 있다.



## 8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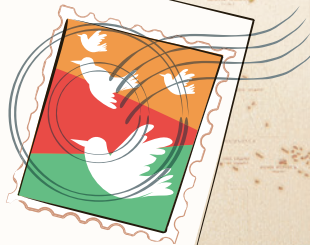
회장 권연규 총무 김희성

2018년 10월 6일 제88회 동기회가 상인동 소재 식당에서 10여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동기회 창립 행사를 가졌다. 초대 회장은 권연규 동기가 희생하여 봉사하기로 자청하였다. 이날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88회 동기회기'를 공식적으로 수여하면서 정식 동기회의 시작을 알렸다. 첫 행사의 시작으로 10월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동기회 결성을 알리고 첫선을 보였다. 이날 총동창회장의 격려금으로 88회동기회는 더욱 더 열심히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짐했다.





## 지부 소식



### 재경지부

회장 전진우(59회) 사무총무 방성욱(70회)

2018년 6월 6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잔디구장에서 진행된 제34회 재경 계성가족친선체육대회에 이재운 총동창회장, 전진우(59회) 재경회장을 비롯하여 이시원(50회), 박창달(51회), 윤동한(52회), 유윤철(52회), 이병구(53회)등 역대 총동창회장 및 재경지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기수별 선수단과 동문가족이 참석하여 대회를 풍성하게 하였으며 특히 이날 (사)청라언덕 장학회는 서울에 재학 중인 모교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재경지부는 '산이 있기에 산에 오른다'는 표어를 가지고 있는 <재경계성산우회> (회장 박용운 62회)와 <기우회>(회장 노대균 59회), 마라톤 동호회인 <계마회>(회장 김재철 63회) 등을 통해 재경동창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도 재경계성학교동창회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월 9일(금)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 3월 17일(토) 산우회 시산제
- 3월 22일(목) 계우회 Tee-Off
- 5월 22일(화) 7080회장단 산행 및 단합대회
- 5월 22일(화) 청라언덕과 함께하는 계성청년포럼
- 6월 6일(수) 제34회 재경계성가족친선체육대회
- 10월 20일(토) 재경 및 대구 산우회 합동산행
- 10월 30일(화) 제27회 재경동창회장배 기별대항 골프대회
- 11월 17일(토) 제1회 재경동창회장배 기별 당구대회
- 12월 1일(토) 제10회 동창회장배 기별 바둑대회 및 송년회





## 재 김천지부

회장 공영찬(62회) 총무 황상태(70회)

김천지부는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공공기관 이전됨에 따라 공무원 동문들이 많이 이전해 동문회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월 19일에는 한국전력기술, 도로공사에 근무하는 동문들과 소모임을 가지며 김천동문회 최고 원로 선배님이 신 50회 최수호 동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저녁식사 후 환담을 나누고 동문회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많은 대화 속에 다음 모임을 기약 하면서 모임을 마쳤다.



## 재 울진지부

회장 김용근(61회) 총무 임정준(75회)

12월 18일 울진 <다도일식>에서 올해 마지막 총회를 가진 울진지부 김용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화합하는 동문회가 되기 위해 회원들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성이 되고자 다짐하고 계성인의 자부심을 드높이자”고 말했다. 한편 동문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내년에도 전 동문이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을 기약했다.

## 재 칠곡지부

회장 이수팔 총무 박경수

그 동안 미루어왔던 칠곡지부 송년모임이 11월 22일 <형제수산>에서 모임을 가지고 새롭게 도약하는 칠곡지부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1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해부터 동문간의 돈독한 우의를 보이자”는 이수팔 회장의 인사말을 전하며 더욱 더 단합된 동문회가 될 것을 약속하면서 이날 즐거운 저녁 시간을 가졌다.



## 제천·영월·단양 지부

회장 황병섭(69회) 총무 윤여찬(80회)

제천·영월·단양동문회는 계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46회 동문에서 86회 동문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총 20명의 많은 회원들이 친목을 다지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끈끈한 계성 정신으로 뭉쳐 식사와 체육활동, 가족모임,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이 지역 거주하는 동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홍인식(46회), 임학상(59회), 김동수(59회), 김승덕(61회), 권호종(63회), 한승우(64회), 이기형(64회), 배상환(65회),

## 지부 소식

권영철(66회), 전인석(68회), 황병섭(69회), 윤석표(70회), 김기현(70회), 박승호(72회), 김충수(73회), 위성목(75회), 유창진(76회), 윤여찬(80회), 김진욱(81회), 서세환(86회) 이상 20명



## 재 충남지부

회장 주재일(61회) 총무 이시민(70회)

최근 충남지부 연혁과 동문회 활동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94년 12월 주재일 동문 외 3명 결성 합의
- 1995년 2월 천안지역 계성동문회 창립, 4월 재충남계성동문회로 명칭 변경
- 2002년 개교 100주년 총동창회에 찬조 100만원
- 2005년 5월 천안지역 대구상고 동문과 체육대회 교류
- 2013년 6월 재충남계성동문회 밴드 오픈
- 2015년 2월 재충남계성동문회 20주년 행사 개최

### ■ 현 23대 임원현황

- 회 장 : 주재일(61회) · 부회장 : 유하상(65회)
- 총 무 : 이시민(70회) · 재 무 : 박경수(88회)

### ■ 정규 모임 : 매짝수월 첫째주 화요일 6:30(4월부터)

본회의 정기모임을 매짝수월 첫째주 화요일에 갖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8년 첫회 모임을 4월 3일 정종진(77회) 동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고 동문회 활성화 방안과 길홍사 안내 강화에 역점을 두고 회의를 진행 하였다.





#### 2회차 모임

- 일시 : 6월 5일 19:00
- 장소 : <신진성아구찜 두정점>
- 회의 내용 : 야유회 및 산행 추진의 건

#### 4회차 모임

- 일시 : 11월 2일 18:30
- 장소 : <삼거리 옛날민속집>
- 회의 내용 : 재충남동문 송년 모임과 동문 주소록 전달

#### 3회차 모임

- 일시 : 8월 7일 18:30
- 장소 : <만복국수 두정점>(신우창(72회) 동문 운영식당)
- 회의 내용 : 동문 주소록 정리, 안내 방법 단일화, 4회 모임 11월 2일 개최 결정

#### 5회차 모임

- 일시 : 12월 18일 18:30
- 장소 : 메가박스 및 주변 식당
- 회의 내용 : 가족동반 문화행사로 마무리

이상의 행사를 통해 충남동문회 1년을 마무리했다.



## 재 경주지부

회장 이종태(67회) 총무 박순철(73회)

2018년 신년회로 출발한 경주지부는 격월로 모임을 가지며 활발하게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3월 월례회, 5월 월례회, 7월 야유회, 9월 월례회, 11월 송년회 순으로 진행하며 20여 명이 동문들이 우의를 다지고 있다.

경주지부도 시대의 흐름을 아쉬워하며 후배 동문의 참여가 저조한 편으로 이전의 <동문수첩> 등을 발행할 정도로 융성함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 재 경남지부

회장 김재호(62회) 총무 박진홍(74회)

재 경남계성동문회는 한동안 모임이 열리지 않다가 최근 2년 정도부터 분기별 한 번씩 모여 담소도 나누는 정겨운 모임이 되고있다. 뿐아니라 특별한 몇몇 동문들은 낚시도 같이 가면서 우애를 다지고 있다.

지금은 이 모임이 부산과 경남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동문 모임으로 분기별 1회 씩 모여서 술자리와 4구 당구도 치면서 우의를 다지고 있으며, 12월에는 최초로 재경남계성동문회 이름으로 밴드도 개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임에 나오는 인원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12명에서 14명 정도이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모임 횟수도 늘이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과거 10년 전에는 모임의 규모가 컸지만 내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명맥이 끊어졌으나 이제부터 다시 위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재 고령지부

회장 김의순(54회) 총무 손창웅(62회)

회원 확충이 어려운 재고령지부는 12월 18일 고령읍에서 조출한 송년회를 가지며 식사 후 현안이 되고 있는 회원 확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12명의 회원들이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예배와 교가제창을 마지막으로 송년회를 마치며 아쉬움을 달랬다.



### 재 영주지부

회장 배병수(61회) 총무 오성우(69회)

영주지부는 2018년 3월 23일 회장 장용호(62회), 총무 오성우(69회)를 선출하면서 동문회를 운영하였다.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주지구 동문회는 자주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지속적인 동문회 모임을 가져서인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형님, 아우하면서 서로의 친밀감이 돈독한 분위기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 2018년 9월 4일 배명득(88회) 동문은 동양대학교에서 전주 우석대학교로 전근하였으나 모임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 2018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장 박정렬(69회) 동문, 영주소방서 서장 윤영돈(70회) 동문이 모임에 합류하는 등 활기찬 동문회가 되어가고 있다.
- 2019년도에는 소백산 자락길 등반대회와 골프대회를 추진을 요청하는 안건이 접수되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동문회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자는 전체 의견을 따라 추진해오고 있다.





## 재 인천지부

회장 박종건(60회) 총무 김진곤(69회), 이상화(83회)

2018년 12월 20일 인천동문회는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지며 동문회 발전과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모임을 진행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총동창회와 소통은 잘 되질 않지만 옛 추억을 회상하고 모교를 사랑하는 애교심으로 무장한 동문들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 재 경산지부

회장 박익순(62회) 총무 김용하(71회)

언제나 활기찬 모임을 가지는 경산지부는 매월 모임을 가지며 지역동문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월 29일 1차 모임부터 6월 2차 모임을 가졌으며, 동문회 쉼터 2주년 개소식, 동문족구대회 등 한해를 바쁘게 활동한 가운데 12월 29일 송년회를 가지면서 아쉬운 한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기해년을 힘차게 맞이하였다.





## 재 고양·파주지부

회장 윤만용(63회) 총무 권오윤(65회)

계고파는 경기도 고양·파주·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계성동문 모임으로 많은 동문이 활동하고 있다. 8월 정모, 번개모임 가을 소풍으로 원주 치악산을 1박2일로 다녀왔다. 황대일 동문의 도움으로 알찬 시간을 가지는 등 동문 결속의 초석을 더욱 더 견고히 했다. 올 한해 마무리하는 행사로 지난 12월16일 송년회를 가지며 내년을 기약했다.

이 자리를 빌어 초창기 계고파모임의 결성을 주도하고 운명을 달리한 (고)김기범 동문의 명복을 빈다.



## 재 시카고지부

회장 박창호(6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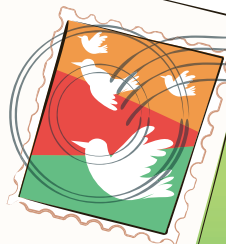
2017년 박해달 동문의 은퇴식 이후 뚜렷한 행사가 없던 시카고동문회는 지난 11월 2019년도 동창회 준비 모임을 가지며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식사와 정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박창호 회장 부부, 박순호 전회장 부부, 김왕기, 이상기(미대법원 고문 변호사) 부부, 김광호 전직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 동호회 소식



## 계성 마라톤동호회

회장 서관호(63회) 총무 추상엽(71회), 김정훈(71회)

계성마라톤동호회는 그 동안 많은 대회에 참가하여 계성인의 단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기식(51회), 유창기(53회), 황순길(54회) 고문을 위시하여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는 마라톤 동호회는 특히 대구 마라톤 대회에는 모교 재학생까지 참석하여 끈끈한 동문의 정을 나누고 있다.

특히 매월 2번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는 마라톤 동호회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 있는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2018년도 회장을 맡아 수고한 신 역(60회) 동문에 이어 2019년도에는 서관호(63회)동문이 회장을 맡아 수고하게 되었다.

특기할 사항은 2018년 4월 1일 개최된 대구국제 마라톤대회 모교 재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선·후배가 함께 달리며 돈독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대구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선배와 후배 동문의 정을 나누다







## 계성총동창산우회

회장 김충옥(66회) 등반대장 이인직(60회) 총무 양명환(70회)

총동창 산우회는 지난 3월 5일 창령 관룡사에서 많은 산우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산제를 가지며 올해 산행 무탈과 화목한 분위기를 기원 하였다. 올해도 매월 정기적으로 첫째 일요일 전국 명산을 돌며 동문들과의 우의를 다졌고 지난 12월 2일 경주 남산 산행을 마지막으로 올해 일정을 마치며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

그 동안 한 해 동안 수고한 오상달 회장의 인사와 총동창회장의 감사패 수여식과 신임회장 김충옥 동문의 인사말로 총회를 마쳤다.



## 계성OB축구회

회장 박준모(75회) 총무 이윤호(93회), 권동현(93회), 정헌기(93회)

전성기 계성축구의 맥을 이으려고 노력하는 계성동문OB 축구회는 올 한해도 동문들이 일체 단결하여 창립 41주년 행사를 치루고 많은 교류전을 가지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계성아담스야구단

회장겸 감독 이영재(82회) 총무 김병수(82회), 황우민(85회), 권연규(88회)

계성아담스야구단은 2014년도 계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회인 야구팀이다. 계성학교 설립자 아담스 선교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74회부터 95회까지 화합과 우정을 나누며 열심히 활동하며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 계성아담스야구단은 2017년도 달서회성야구리그와 세천사회인 야구대회우승, 2018년도 효진토요리그 우승한 바 있다.

아담스야구단은 교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대구 최고의 사회인야구팀으로 거듭나고 있다. 야구에 관심 있는 계성학교 동문 누구나 입회를 환영한다.



## 계성문학회

회장 이원우(54회) 총무 노태맹(68회)

전국의 고등학교 중에서 졸업생들끼리 모여 문학동인지를 발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40년 가까이 이어져오며 매년 회지를 발간하는 학교는 더욱 드물다. 계성학교 출신 문인들은 1981년 창간호를 출간한 이래 지금까지 <계성문학>을 발간해 왔다.

소설가 김동리, '어린 음악대'의 아동문학가 김성도, 청록파 시인 박목월, '무지개'의 극작가 이만택 등을 배출한 우리 계성학교 문인들은 1981년 개교 75주년을 기념하여 기념 문집 <계성문학>을 창간하였다. 이 개교 75주년 기념 문집이 발간된 이후 계성학교 출신 문인들 사이에 <계성문학>을 매년 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이 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계성문학>이 발간되고 있다. 권기호, 이수남 동문이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이원우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2019년 1월 <계성문학> 제34호가 발간됐다.



## 성구문학동인회

회장 박병화(68회) 총무 김광택(80회)

이 이름의 이야기에는 <근일점문학동인회>를 바트리고 할 수는 없다. 인문계에서 진학과 학습이 우선이겠지만 감성과 낭만으로 고등학교 3년을 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선후배 관계 아래 원고지와 펜,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학교내 폭력(?)으로 돈독한 우리만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쌓았다.

그 결과 현실보다는 마음과 뜻이 많이 남은 졸업생의 중심으로 기동같은 큰 줄기가 생겼다. 성구문학동인회(聖邱文學同人會) 성구(聖邱)의 이름은 모교 계성의 성(聖)과 대구 구(邱)의 한 자를 빌려 이름을 지었다.

초창기 성구문학동인회는 경상감영공원 앞 ‘맥향’이라는 COFFEE SHOP에서 연간 시화전도 개최하였지만, 현실로 몸이 떠난 모임은 문학이라는 이름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근일점의 쌓아올린 잔정으로 모임은 정례화되고 더 단단해 졌다. 현재 20여명이 매년 정기 모임을 봄,가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봄,가을에 날씨 좋은 날을 골라 체육대회로 몸을 다지고 다져진 몸으로 12월에는 송년회를 열어 반드시 체력을 점검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실시하고 있으며 행사마다 본회 고문이신 이수남 선생님을 초대하여 함께 정의를 나누고 있다.

늘 문학동인회라는 명제에 애달아 하면서 끊지 못하는 문학의 열정을 개인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중 1982년 졸업한 근일점11대 법학자이자 교수인 채형복 동인이 등단을 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창작활동으로 금년 “칼을 갈아도 날이 서질 않고”라는 제목으로 6집 시집을 발간하면서 가장 왕성한 창작 활동 중이다. 특이한 사실은 이번에 발간되는 <계성문학> 34호에는 채형복 회원을 비롯, 필자와 박성화 회원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어 <문학성구>의 명성을 잇고 있다.

더불어, 근일점(近日點)의 의미가 태양을 완성된 세계로 여기고 그 곳으로 가까이 이르려는 노력이니 고교 3년 동안 그 정신과 그 배움을 고스란이 간직한 졸업생들의 모임인 성구(聖邱)문학동인회가 문학동인회라는 이름으로 제 옷을 입은 모습을 염원해 본다.



5월 춘계 체육대회



12월 송년회



동/문/ 에/세/이/

## 등산 예찬



**이인직** (60회)  
계성산우회 등반대장

영국의 전설적 산악인 조오지 멀로리는 “왜 산에 오르는가” 라는 질문에 “저 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성철스님의 화두처럼 단순한 자연의 이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로 널리 회자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평소 산을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산에서 왔지요”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인 물은 산에서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태양의 열기로 바다에서 생겨난 수증기는 구름이 되어 육지로 향해 이동합니다. 습기를 머금은 구름은 햇살을 받은 산정의 바위에 부딪혀 물방울이 되어 산기슭에 비를 퍼붓게 되죠. 그 비는 모여 개울이 되고 그 개울은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죠. 그 빗방울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은 산에서부터 생겨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울 주변에 마을이 생기고 큰 강 주변에는 도시가 생겨났죠.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이 강 유역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였고 오늘날 대구 시민인 우리도 금호강, 낙동강이 흐르는 강 유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과 강’이라는 화두에 잘 어울리며 인생의 여유를 즐기는 취미활동은 바로 산과 강을 바라보며 호연지기를 느끼는 등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팔공산과 비슬산을 바라보는 감성의 명문 계성동산에서의 배움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산에 대한 단상들을 적고 있는지도 모르죠. 산을 오르는 많은 등산객들에게 친숙하게 그리고 도전적으로 들려오는 단어에 ‘백두대간’이라는 네 글자가 있죠. 산 사나이들의 로망인 백두대간의 개념을 잘 나타내는 한 단어는 산자분수령입니다. 즉 ‘산은 물을 가르는 고갯마루이다’ 라는 개념 속에 우리 한민족의 태극사상인 음양의 원리가 잘 함축되어있다고 봅니다. 산은 흘러가는 강을 침해하기 않으며, 흘러가는 물은 산을 넘을 수 없는 서로 간의 조화로움 속에서 음양이 어울려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원리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 서울의 삼각산과 한강수, 우리 민족의 영원한 터전이죠. 오랜 세월 동안 자연의 강한 햇빛, 비바람을 견디어내며 형성된 삼각산의 인수봉, 자운봉, 신선봉이 저 흘러가는 한강 물길을 바라보죠. 유유자적 하류로 흘러가는 부드러운 한강수

가 바다로 가기 전 마지막 유혹의 눈길을 세 봉우리로 향해 반짝이지만 산자분수령의 천명 하에 그저 담담하게 쳐다보며 자신의 자리를 지조있게 지켜온 우리 민족의 영산이죠. 그 바위산과 물의 기상을 우리 민족은 듬뿍 지니고 태어났겠죠.

산은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더 고향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는 고향을 떠나 외로운 타지에서 생활하는 그래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된 삶의 연속이죠. 삶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망가져가는 나의 마음을 달래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언제나 말이 없지만 정겨운 산이 바로 그 고향 대역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은 우리의 허약한 심신을 회복시켜주며 정신을 건전하고 맑게 재생시켜주는 곳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그리워하는 고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풍요로움은 두 팔을 다 벌리고 받아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많죠.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산의 모습에서 우정 어린 친구와 그리운 연인과의 만남을 꿈꾸며 산행에 나서는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봄의 산은 먼 산의 눈이 녹아 졸졸 흘러 내려오는 시냇물 소리에 맞추어 하늘을 나는 새도 명랑하게 지저귀며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축제와 같이 느껴지죠. 그 축제에 함께 오라고 부추기는 나의 옛 친구가 되어 주는 느낌입니다. 뜨거운 태양의 유혹이 있는 여름산은 짙은 녹음을 드리우고 자기 머리칼 밑으로 들어와 쉬어라고 나를 끌어당기죠. 그 여인의 품에 안겨 그리고 폭포의 시원함에 발을 담그며 여인과 미소를 나누는 가운데 더위는 훌쩍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달콤한 추억을 남기죠. 그 달콤함에 이어 곧 그 여인에게서부터 다시 날아온 레트카펫보다 더 화려한 오색 단풍파티에 참석하라는 가을산의 초대장을 받죠. 소나무와 바위와 단풍이 어우러져있는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은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파를 이루죠. 그리고 겨울산, 나뭇잎을 다 떨군 험벗은 나무들이 몰아치는 삭풍에 온몸을 떨며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겨울산은 친구가 먼 타국에서 외로움을 달래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달라고 호소하죠. 그러면 당연히 눈 덮인 하얀 산봉우리를 향해 겨울 차림새로 무장을 하고 나서죠. 겨울산의 매력은 바로 그 인생의 쓸쓸함을 만끽하는 재미가 솔솔 묻어나는데 있죠.

쏟아지는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 인생살이 고비마다 우리는 동산관, 성재관에서 배운 지혜로서 오늘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계성총동창산우회 동문님들은 산을 사랑하시는 만큼 건강하게, 맑은 얼굴과 건전한 사고로 매달 이어지는 알찬 산행을 기다리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성산우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며 내년에도 계성인들의 산 사랑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동/문/ 에/세/이/

## 퇴임에 즈음하여



장 욱 (62회)  
계성중학교 교장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계성학교에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 나의 큰 과제이었으며 이는 예수님이 나 즉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으로써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니 학교 계성과 함께했던 나의 40여년의 세월 동안 주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일들에 발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1969년 계성중학교에 입학하여 1975년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영수 여사의 죽음과 박정희 대통령의 피격과 신군부의 탄생과 그리고 몰락 등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의 가장 심한 격동기에 대학과 군 생활을 마친 후 1983년부터 지금까지 계성중 고등학교의 교사로서 지내는 동안 계성학교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련이라는 군사교육이 사라지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의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으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정신에 입각한 체벌금지,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 위주의 교육, 한학급당 70여명의 콩나물 교실에서 요즘은 학급당 20명 정도의 학생 수가 학년당 12학급에서 5학급 정도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 등을 크게 손꼽을 수 있습니다.

계성학교의 가장 큰 변화를 들자면 무엇보다도 서구 상리동에 7만평 가까운 부지를 마련하여 세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명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100년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 것입니다.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미래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큰 인격을 닦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교육의 기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가 변치 않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3년 계성학교의 중심인 본관 옆에 자리하여 계성학교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성교회가 세워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중 고등부 학생들의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교육하고 있는 것은 변치 않고 흘러가는 계성학교 교육의 큰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재경계성가족친선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도 순서를 맡았던 권혁중 목사님이 계성교회 출신이라는 것 또한 특별히 주님께 감사드릴 일이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교계에서 활동하는 계성 출신의 목사와 장로들이 500여 분 계신데 이들로 구성된 계성목장회가 모교의 발전과 동문들의 발전 및 신앙 증진을 위해 매달 모교 안에 위치한 계성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회를 행하며 대구와 서울의 목장회가 매년 여름 정기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것 또한 다른 어느 학교에서도 볼 수 없는 감명 깊은 일입니다.

도서관, 어학실,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에서 궁리하며 인문학과 예술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지배하는 디지털 시대로 교육의 배경이 바뀌어 계성의 교육에 너무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는 계성이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우리의 뜻대입니다.





## 졸업 40주년 회고

# 추억의 시간여행을 마치고...



김진걸 (65회)  
졸업 40주년 준비위원장

모교를 떠난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다.

4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전국의 친구들이 모일 적절한 장소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가야만 할지 참가인원 및 예산은 얼마가 적절할지 막연함으로 고민을 했었다.

미리 행사를 경험한 선배님께 여러모로 자문도 구하였다.

40주년은 25주년과는 달리 대부분 당일 일정으로 5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하여 행사를 하였다는 이야기에 우리 65회는 100명의 인원의 참여를 목표로 설정하고 행사 시기는 5월과 10월중으로 장소는 설악산과 경주 두 곳으로 정하여 동기회 고문단 모임과 부회장단 모임의 결정을 통하여 최종 10월중 1박 2일 경주로 확정하였다.

참여대상자는 동기들만으로 하며 주제는 추억의 수학여행으로 <4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보자>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과는 달리 졸업 25주년과 30주년 때 보여준 65회 동기들의 참여와 열정도 세월에 묻혀 모두에겐 지나간 추억이 되어 버린 듯 하였고 상당 수의 친구들이 현역에서 은퇴하였기에 40주년 집행부의 예상 참가 인원과 행사 예산이 너무 무리수가 있다는 몇몇 동기들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그러나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일들이 아니기에 많은 인원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2018년 8월 23일 40주년 행사를 홍보하고 안내하며 동기들의 참여 욕구를 높이고자 행사밴드를 개설하였고 집행부를 도와줄 12명의 각 반별 반장을 선정하여 집행부와 반장들의 단체 카톡방을 통하여 각반 참석인원의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밴드에 지속적으로 참여인원 현황과 찬조자 현황을 알림에 따라 가입자가 170명으로 늘었고 사실상 반별 참여인원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반 반장들의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다.

9월 추석이 지나면서 준비한지 한 달 만에 예상 참석인원이 100명이 넘어섰고 10월초에는 150명 가까이 참여 신청을 하였다.

또한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민할 때 대구와 재경의 역대회장을 역임한 고문들과 해외에서 사업하는 동기님들 또 행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찬조해준 동기님들의 찬조금액이 전체행사 예산의 70%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





다. 40주년행사 준비 중임에도 10월 총동창 가족체육대회에 자발적으로 2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각 기수 여러 동문들과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길고도 지루한 행사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는 어쩌면 65회의 지나친 나르시즘 같지만 졸업 후 세월이 흘러가면서 각 기수별 특히 후배 기수들의 동기모임이 힘들어지고 계성인의 자긍심과 자존이 추락하는 현실을 보면서 경주까지 156명의 동기가 참석해 1박 2일 동안 한명의 사고도 없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40년만의 추억의 수학여행을 다녀온 별난 기수로서 호기를 부려본다.

모든 동문들이 계성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이번행사를 위해 멀리 캐나다에서 참석하여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오랜 해외 생활의 향수로 인한 불면증에서 벗어난 차장현 동기를 비롯한 해외 동기님들과 끝까지 준비위를 격려하며 부족한 내가 준비위원장의 임무를 완수 할 수 있게 도와준 남병현 동기회장과 2018년 집행부 특히 구자일, 이흥건, 권경훈, 동기에게 감사를 전한다. 우리 65회가 10년 후 50주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추억의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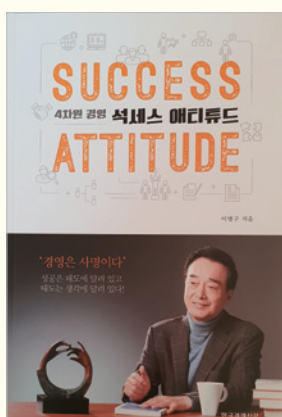
## 신간 소개



예서원 / 변형국판 132면 /  
300부 한정판 / 정가 10,000원

### 변홍섭(52회) 『홍섭의 시와 사진집』

1960년대 모교 문예반 시절 시를 쓰며 문학을 꿈꾸었던 변홍섭 동문이 50여년이 지난 후 시와 사진집을 출간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이기록은내일기장이다. 시의형식에 대처 보았다'는 자서를 붙이고 있는 이번의 시와 사진집은 <내가 어렸을 때>, <세상의 속살> 등 70여편의 시와 사진으로 엮였으며 사진작품은 카메라를 흔들어 피사체를 촬영한 특징이 있다. 성균관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사진과 수필집』(2018년), 『시와 사진집』(2018년)을 출간한 바 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기도한 변홍섭 동문은 학교재, 리서울갤러리에서 개인전 3회를 가진 바 있으며 『사진집』(사진예술사2004년)을 출간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i / 변형국판 244면 /  
정가 16,000원

### 이병구(53회) 『석세스 애티튜드』

이번에 혁신적 글로벌 전문기업(주) 네페즈 창업자, 대표이사 회장인 이병구(53회) 동문이 『석세스 애티튜드』를 출간했다. 이 저서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직면한 현실 앞에 기존의 경영방식을 뛰어넘어 경영의 기본사실을 일깨워 주는 혁신적인 경영의 주문서라 할 수 있다.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강소기업가상>과 인간 경영대상 <인재개발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있는 이병구 동문은 이번의 저서를 통해 '기업의 가치는 무엇이며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기업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한다'고 권두에서 밝히고 있다. 특히 미래에서 주목받는 4차원 경영의 근본, 핵심가치관, 생각, 도구 등을 밝히고 있어 주목하게 한다.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는 기업가로 알려진 이병구 동문은 벤처기업대상을 수상했으며 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다.



도서출판 WOMAN / 468쪽 양장  
300면 / 정가 15,000원

### 이재윤(56회) 『임플란트 이야기』

'덕을 닦아서 넓게 베푼다.'라는 뜻을 가진 시혜수덕(施蕙修德)을 병원의 원훈으로 삼고 있는 덕영치과 병원장인 이재윤(56회) 총동창회장이 최근 칼럼집 『임플란트 이야기』를 펴냈다. 본 저서는 2012년도에 발간한 『임플란트 이야기』를 대폭수정 보완한 것으로 임플란트 이야기, 인술과 직업관, 치료 소고, 사회를 바라보는 창 등의 5부로 구분되어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병원과 고객 간의 소통이 원활해 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병원과 관계되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책머리에서 밝히고 있다. 시집 『보리와 이빨』, 『비소리』, 수필집 『낭만적사고』, 『봉사의 철학』, 『일등국으로 가는길』, 『자유동화』 등 11권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 신간 소개



북랜드(2017) / 신국판 284면 /  
정가 12,000원

### 장기성(57회) 수필집

#### 『설렘이 삶을 다듬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수필가인 장기성 동문이 첫 수필집을 출간했다. 수필가로 등단하기까지 대부분의 저서나 논문은 언어학 영역에 천착하였는데 퇴직 후부터 수필에 관심을 가져오다가 올해 초 <한국수필>의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다.

책머리에서 저자는 ‘한 평생 교직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레테의 강을 건너면서 대부분 떠나가 버렸다. 그 가운데 강바닥에 가라앉은 몇 개의 기억 파편들을 건져 올려 여기에 가지런히 쌓아본다’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번의 수필집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상의 삶에서 흔적처럼 남아있는 기억과 체험 등을 재현한 40편의 작품을 4부로 엮어 출간했다.

경북대학교 독어교육학과, 동 대학원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독어독문학 전공) 명예교수/ <한국수필> 신인상 수상(2018)/<매일신문> 시니어문학상 수상(2018)



하움출판사 / 신국판 / 정가  
10,000원

### 우석용(75회)

#### 『꽃이 가득한 세상이어라』

‘걷다가 가끔 시를 쓰는 남자’라는 말을 듣고 있는 우석용 동문이 ‘누가 봐주지 않아도 후미진 골목 언저리에서 열심히 꽃을 피워내는 풀꽃의 삶을 담았다.’며 스마트폰 시화집을 펴냈다.

시인이자 화가이기도 한 저자는 ‘풀꽃을 닮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의 마음에 초록의 향기를 서서히 새기게 하고자 하며 각 작품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린 시화집이기도하다. 당연하게 느끼는 순간도 특별하게 기록하며 특별한 순간에도 당연하게 기록하는 작가의 거침없는 표현을 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이 책은 겨울 사이로 봄비 내린다. 풀꽃 가득한 세상이어라 등 5부로 되어있으며 마치 독자로 하여금 편지를 받는 느낌이 들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금성출판사 / 4x6배판 1158면 /  
별책부록 『직장·직능·지역별 명부』  
4x6배판 308면 / 정가 50,000원

### 『계성인』

#### 총동창회 명부 제17호

2018년 3월 계성중·고등학교 동창회 인명부 『계성인』 17호가 발간 되었다.

매년 5년을 주기로 발간된 인명부는 점점 까다로워지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하여 발간이 쉽지 않은 가운데 간행되었다. 『계성인』 17호는 1회 졸업생부터 104회 졸업생까지 그리고 직장·직능·지역별 인명부가 수록되어 있다.

(구입문의 : 동창회사무실 TEL. 053-255-3900)



---

# 모교소식

| 고등학교 · 중학교 |





## 국제인증 교육과정(IB) 관심학교 선정

지난 10월 25일 모교가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국제인증교육과정(IB) 관심 학교로 선정되었다.

국제인증교육과정(International Baccalaureate)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미래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으로서 교실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인증교육과정(IB)은 1968년 시작된 Diploma Program으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120개국 4000여 개의 고등학교가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1개의 국제 학교와 경기외고가 IB DP 과정을 실행 중에 있으며 졸업생은 대부분 해외의 우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국내 12개의 상위권 대학으로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고 있다.

모교는 이번 대구광역시 교육청 정책의 일환으로 관심 학교로 선정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창용 교장과 문영배 교감을 중심으로 하여 류창열 국제교류부장이 코디네이션 역할을 맡아 국어, 수학, 사회,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국제인증교육과정 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매주 교장실에서 연구 모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의 IB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거나 계획되어 있으며, 충남 삼성고와 일본 IB 중등교육기관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모교가 국제인증교육과정 후보 학교, 나아가서 인증학교인 IB World School이 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 2018학년도 입학식



2018년 3월 2일 고등학교 입학식이 상리동 시청각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남자 129명, 여자 134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여 계성학교의 3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학교발전위원 초청 “감사의 날”

지난 3월 29일 그동안 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학교발전위원> 초청 감사의 행사를 학교에서 가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날 “감사의 날”을 마련하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 스승의날 행사

5월 15일에는 전교생이 참여하여 은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스승의 날” 행사를 운동장에서 실시하였다.



## 학생회장 선거





민주주의의 꽃으로 표현되는 선거가 재학생 개개인의 의사전달 표시라 할 수 있겠다. 학생회장 선출을 우리 손으로 지명하고 선출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학교 생활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체험의 산 교육이다.

## 선배와의 만남 성기선(69회) 한국교육평가원장

수능 출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교육평가원 성기선 원장이 지난 9월 13일 모교 덕영실에서 후배들을 위해 유익한 강의를 하였다.



## 2018 축제 한마당

2018년 12월 27일 대신동 강당에서 진행된 2018년 재학생 축제한마당에는 1,2학년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성가 합창, 장기 자랑, 가요제 등 일년에 한번 가지는 축제로 학업의 스트레스도 내려놓고 전 학년이 즐기는 축제 행사로 열었다.



## 교내 등반대회

10월 26일 팔공산 일원에서 치러진 제27회 교내 등반대회는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계성인들만의 축제로 이 같은 대회를 통하여 인내심과 자신감과 도전감을 함양 할 수 있는 행사로 계성학교만이 가지는 특색을 보여주었다.



## 계성의 날 행사

창학118년 개교112주년 기념식이 10월25일 대신동 교정 쉼터홀에서 신일희 계성교육재단 이사장, 이재운 총동창회장 등 많은 내빈과 학부형, 교사, 학생이 참석하여 개교기념일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날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 개교 112주년 계성예술제

개교 112주년 기념 계성중학교예술제가 10월 11일 (목) 12시, 개막식을 가지고 2일간 교정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본관 앞에서 열린 개막식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열었다.

10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시화전, 미술전, 컴퓨터 경진대회, KS인성교육활동 전시, 창의융합동아리 작품 전시, 학부모 작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회가 본관 앞, 오십계단, 미술실 등에서 열렸는데 오십계단에서 열린 시화전은 백일장 입상자 작품을 시화로 전시하여 학생들이 시의 세계에 흠뻑 젖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미술전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수업 시간 완성한 작품을 전시하여 학생의 미술적 결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올해는 특히 선생님과 함께 '꿀재미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학생들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하며 학생들이 예술제의 한마당의 의미를 한껏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10월 11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계성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는 1부 발표회, 2부 장기자랑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함께 교가를 부르며 끝을 맺었다.

계성음악회는 회수가 거듭 되며 학생과 교사가 한데 어울리는 의미 있는 음악회로 발전하고 있다.



## 2학년 수학여행 실시

2학년 수학여행을 11월 1일(목)에서 2일(금)까지 1박 2일간 전라남도 화순, 순천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가을

이 완전한 날씨 속에서 학생들은 단체생활의 질서를 잘 지키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상들이 남겨 놓은 문화 유적을 답사하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학여행도 안전을 위하여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실시를 하였는데 정해진 코스를 돌면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1일, 학교를 출발한 여행단 제A팀은 사천 항공 우주관, 순천만 생태공원 및 국가지정 정원을 관람하고 화순의 숙소로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2일은 죽녹원, 낙안읍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을 답사하며 우리 문화의 정수를 체험하였다.

제B팀은 제A팀의 역방향으로 답사하였는데 모두 질서를 잘 지켜 의미 있는 수학여행이 되었다. 이번 수학여행은 안전 여행을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였고 이를 학생들이 잘 준수하여 의미 있는 여행의 시간을 가졌다.



## 1학년 수련여행 실시

1학년 수련활동이 10월 31일(수)에서 11월 2일(금)까지 2박 3일 동안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실시되었다. 1학년 133명의 학생과 교사 6명이 상쾌한 가을 날씨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10월 31일 입교한 학생들은 먼저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수상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의 자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진로 추적 활동을 하였다. 11월 1일(목) 오전에는 자전거 타기와 산행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받으며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체험을 가졌다. 저녁에는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낙동축제의 시간>을 가졌고, 축제를 마치고 담임과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1학년 생활을 반성하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설계하였다.

11월 2일 오전에는 협동활동을 하였는데 학생들은 조



를 편성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활동은 협동활동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감하였다. 2박 3일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1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국토순례 실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국토순례를 실시하였다.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2006년 100km 걷기를 시작으로 올해 13회째 맞이하며 재학생,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약 60km 거리를 걸으면서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84명, 교사 16명으로 구성된 국토순례 단원들은 충청북도 괴산 산막이옛길에서 출발하여 문경새재, 화양계곡 등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학교의 국토순례는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 주며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뜻 깊은 행사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간의 끈끈한 사제지정도 만들어내는 매우 특별한 체험활동이다.

## 2018학년 '우송장학금' 수여식 가져

5월 16일(수) 우송복지재단 김대곤 이사장(한영산업주식회사 회장, 50회)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 15명에게 각각 2백만 원의 <우송장

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김대곤 이사장은 2015년 계성중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3천 만원 기탁하며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전했다. 앞으로 매년 3천 만원의 장학금을 계속 기탁하기로 약속 하였다.



## 계성중학교 66회 동기회 장학금 수여식 가져

중학교 66회 동기회가 5월 17일(목) 모교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동기회 회장인 김영규 동문, 수석 부회장 배재묵 동문, 감사 정종표 동문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후배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하였다

이에 학교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수여식을 5월 29일(화) 오전 8시 30분 교장실에서 가졌다. 장욱 교장 선생은 5명의 학생에게 각각 40만원의 장학금을 전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교장 선생은 “선배들의 고귀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선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적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다.

한편 계성중학교 66회 동기회는 올해 뿐만 아니라 2016년에 100만원, 2017년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하였는데,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장학금을 전달할 의사를 학교에 밝혔다.



## 졸/업/회/고

### 계성동산을 떠나며...



송무경 (106회)  
모교 학생회장

안녕하십니까. 계성고등학교 106대 학생회장 송무경입니다. 먼저 2018년 이번 일년간의 계성 총동창회의 소중한 추억과 잊혀져서는 안될 기억들을 기록한 이 회보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성이라는 이름아래 모든 동문이 함께한 일년이라는 시간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회보 한권에 계성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는 것이 행복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코 끝이 시리던 초봄,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찬 채 계성고등학교 상리동 캠퍼스에 첫 발을 디디던 그날, 제가 계성이라는 이름아래 속하게된 첫 날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개교 이래 100년의 역사를 함께한 대신동의 정든 캠퍼스를 떠나 새로운 100년을 도약하는 상리동에서의 첫 시작이었던 저희 106기는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선배님들의 덕을 가장 많이 받은 후배들일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긴 역사 동안 계성의 선배님들은 항상 앞장서서 빛을 밝혀 주셨고 그 정신과 노력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자랑스러운 정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때 마다 앞장 섰던 우국충정의 정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박애정신, 학생 스스로가 학교를 이끌어나가는 자율과 자치의 정신, 이 모든 것이 계성이라는 두 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성 그 이름은 우리의 변치않는 정체성이자 자부심입니다. 말로써 이렇게 미사여구를 통해 표현하지 않아도 계성이라는 이름 아래 함축된 이 정신과 역사를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계성의 정신을 이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인 계성고등학교에서 이 계성의 정신이 점차 흐려지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최근 우리의 학교는 여러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많은 난제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외부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혹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압박 속에서 오랫동안 깨끗하게 지켜온 계성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서 항상 시대보다 앞선 교육을 행하였던 계성이 그런 모습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던 것을, 계성만이 할 수 있던 것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해 나가야합니다. 변화와 쇄신의 전면에는 항상 비난과 그 원동력을 흔들



려는 시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두렵고 그것에 흔들려서 계성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계성은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항상 굳세게 이겨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계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정신이 자랑스러운 계성이라는 이름아래 계속 이어져 나갈수 있도록, 이를 지킬 동문들을 우리의 모교가 계속 배출 할 수 있도록 계성 동문 모두가 힘을 합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는 과거의 것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그릇되고 묵은 것을 과감히 버리는 쇄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1년을 빠짐없이 기록한 이 회보가 계성의 쇄신의 주축이 되지않을까, 변화의 시작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성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성을 위해 각계 각층에서 물심양면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모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啓聖同窓會報』는 동문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계성동창회보가 동문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계성동창회보』는 총동창회 활동 소식 이외에도 각 기수별, 지역별, 직능별, 해외 동문회 소식 등을 동문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문 개개인의 동정(승진, 이동, 개업, 경조사 등)과 그리운 모교소식, 사회 가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동문들의 폭넓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모교와 총동창회의 가교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성동창회보』는 2020년 65호에도 계성인들의 편안한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회보 구독료 납부는 동창회에 대한 동문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 회보 구독료 (1년 20,000원)

대구은행 1906-1906 / 신한은행 01906-1906-1906

예금주 : 계성학교 총동창회

▶ 회·보·자·료·접·수·처 ◀

계성총동창회 사무국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811호(대신동, 계성빌딩 811호)  
TEL. 053)255-3900 FAX. 053)256-4942 E-mail : keisung1906@hanmail.net  
홈페이지 : 계성학교 총동창회 [www.keisung.or.kr](http://www.keisung.or.kr)

소유하고 계신 계성학교 관련자료(사진, 글, 기타 자료)를 총동창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